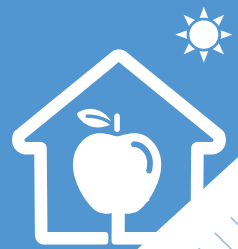


2017 여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음식점 및 대량수요처의 농축산물 소비동향조사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7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박동규 dgpark@krei.re.kr, 노수정 nosu303@krei.re.kr, 김라이 kimlai@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283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4
3. 소비	5
4. 물가	7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1
4. 농축산물 수출입	23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9
2. 엽근채소	35
3. 양념채소	40
4. 과일	51
5. 과채	56
6. 축산	64

특별주제

음식점 및 대량수요처의 농축산물 소비동향조사	73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91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104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7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였고, 이는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7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 소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0.9%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증가로 전분기 대비 1.0% 증가함.
- 2017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년 동기 대비 2.8%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2/4분기 취업자수는 2,67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함. 도매 및 소매업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건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의 증가 전환 등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 2017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국산승용차 판매량 감소 등은 향후 소매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이거나, 소비심리 개선 및 차량연료 판매 호조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함. 축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됨.
- 2017년 5월 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0.3% 증가,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채 금리의 영향으로 하락 후 반등함.
- 2017년 2/4분기 원/달러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은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유가 하락 등의 리스크가 상존함.

II. 농촌경제 동향

- 2017년 2/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2.5% 감소하였고, 이는 가뭄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2017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 전분기 대비 7.1% 하락함.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비중이 가장 큰 미곡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함. 채소는 전년 동기 대비 3.5%, 전분기보다 4.3% 하락함.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복숭아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0.6% 상승함. 축산물은 돼지와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전분기 대비 6.9% 상승함.
- 2017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9%, 전분기 대비 1.3%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영농광열비와 농기구 등의 농업용품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 상승, 전분기보다는 3.0% 상승함. 농촌임료금지수는 농업노동임금과 농기계 임차료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전분기 대비 2.7%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1.4%, 전분기보다 1.0% 상승함.
- 2017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8.3%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의 상승폭이 농가구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농가교역조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남성 취업자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전분기에 비해 40.5%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하며, 전분기보다는 0.6% 증가함.
- 2017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9.5% 증가함.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모든 부류에서 순수입액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11.5% 증가함.
 - 수출의 경우, 축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곡류,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액이 4.9% 증가함. 수입의 경우에는 농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5.6% 증가하고, 임산물과 축산물도 각각 17.0%, 14.0%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음식점 및 대량수요처의 농축산물 소비동향조사

- 식생활 습관 변화로 외식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과 대량수요처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 2017년 2/4분기 음식점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엽근채소와 축산물은 2016년 2/4분기 대비 각각 2.4%, 0.6% 감소한 반면, 양념채소는 0.5%, 과채는 2.4% 증가
- 음식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농축산물은 식재료 납품업자(납품업체)를 통한 구매가 가장 많음.
- 음식점의 2017년 2/4분기 채소류 품목별 구입형태는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 보다는 세척하거나 분쇄과정을 거친 1차 가공형태 선호
 -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음식점은 전체 중 40.5%로 2015년(51.8%)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2/4분기 음식점의 농축산물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채소류의 경우 배추김치(80.6%), 고춧가루(38.5%), 마늘(37.9%) 순으로 중국산 구입 비중이 높았으며, 축산물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 비율이 70% 이상으로 조사됨.
- 대량수요처 2017년 2/4분기 엽근 및 양념채소 구매량은 대부분 증가하며, 중국산은 일부 품목 제외하고 증가
 - 2/4분기 국내산 채소류 구매량은 무, 깻양파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국내산 무와 깻양파는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높아 구매량이 감소했고 중국산은 증가
- 대량수요처의 2017년 2/4분기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건고추(74%), 통마늘(52%)이 중국산 비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대량수요처의 3/4분기 채소류 구매량은 추석수요 및 개학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증가 예상되나 일부 품목(배추, 무, 양파)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구매단가 상승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 필요
 - 양파는 수요가 많은 시기에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해 TRQ 도입과 저장 물량 출하 독려가 필요하며, 고랭지 배추는 8월 하순까지 출하물량 적으므로 대량수요처의 구매시기 조절 및 철저한 소비계획 등이 필요
- 음식점 및 대량수요처 소비동향은 규모별, 업소유형별 등 응답자의 특성과 구매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소비자 동향과 산지동향 변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특성과 구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구매량과 단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 OECD-FAO 농업전망은 매년 주요 농식품(수산물포함)의 향후 10년간 소비·생산·가격·무역을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별내용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분석을 추가함.
- (세계 농업 전망) 지난 10년간 곡물 등 농산품의 충분한 재고 확보로 향후 국제가격은 폭등 이전인 2007~2008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중국 수요 둔화 등으로 1인당 주요 식품 소비증가가 정체되고 식물성오일, 설탕, 낙농품(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품목 증가 예상
 - 2026년 1인당 평균 열량 소비가 최빈국은 2,450kcal에 도달하고, 개도국은 3,000kcal 초과 전망
- (생산) 곡물 생산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연평균 1%씩 증가하고, 낙농품(특히 우유)과 가금류 생산도 지속적인 증가 전망
 - 우유생산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양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산물 생산의 증가를 주도할 전망
- (무역) 농산물 무역 증가율은 지난 10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상위 5개국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우려됨.
- (가격) 전체적으로 농산물 소비증가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충분한 재고 확보 등으로 대부분 품목의 실질가격은 하락세 예상
-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실질 GDP와 인구는 증가하고 영양부족 인구는 감소하였음. 농수산업의 성장(특히 수출주도형 수산업과 야자오일)이 천연자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향후 10년간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농업생산은 증가가 예상되며, 재배면적 증가는 전체 작물 생산 증가의 10%만 차지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자원관리 개선 및 R&D 투자 확대가 필요

3.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 한·미 FTA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이행 3년차 이후 감소세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과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4년차 대비 3.5% 감소한 71.8억 달러이며, 이행 1년차와 비슷한 수준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면서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수출 기반 확충 및 홍보 강화 등으로 4년차 대비 14.4% 증가한 7.2억 달러이며, 발효 이후 연평균 10.3% 증가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3%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8.7%로 상승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대비 0.3%p 하락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0.9%p 상승
-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미국의 작황호조 등으로 이행 4년차 대비 증가했고, 축산물, 곡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
 -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오렌지와 포도 수입이 이행 2년차 수준을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치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9% 감소
 - 미국산 곡물(식용) 수입액은 옥수수 등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 한·미 FTA 이행 5년차, 수입수요 감소와 무역 전환효과 등으로 FTA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경기 회복과 교역여건 호전으로 FTA 효과는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더욱이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FTA 수입피해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또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 주도의 농업분야 통상여건 변화에도 기민한 대응 필요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17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함.
 - 2017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1/4분기(1.1%)보다 증가폭이 축소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신발 등)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휴대폰 등) 소비가 늘어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 2.2% 증가함.
 - 2017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이 증가하여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8.9% 증가함.
 -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17.2% 증가함.
 - 수출은 운송장비,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0.1% 감소함.
 - 수입은 기계류가 늘었으나, 원유 등 수입이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1.0% 감소하나, 전년 동기보다는 6.5%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라이 연구원(kimlai@krei.re.kr),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7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17.7.27.)」,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2017.7.13.)」,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17.7.11.)」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5	2016 ^P					2017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0.8	0.6	0.5	0.9	0.5	0.5	1.1	0.6(2.7)
민간소비	0.9	0.4	-0.1	0.8	0.6	0.2	0.4	0.9(2.2)
정부소비	0.8	0.9	1.4	0.6	0.9	0.6	0.5	1.1(3.2)
건설투자	2.6	2.9	7.6	3.1	2.2	-1.2	6.8	1.0(8.9)
설비투자	0.8	0.6	-7.0	2.6	0.9	5.9	4.4	5.1(17.2)
총 수 출	0.4	0.3	-0.6	1.0	1.0	-0.1	2.1	-3.0(-0.1)
총 수 입	1.2	0.8	-1.5	2.2	2.6	-0.1	4.8	-1.0(6.5)

주 1. 2016^P, 2017^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확대됨.
 - 제조업은 금속제품 등이 줄어 전분기 대비 0.2% 감소함.
 -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줄었으나,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0.8% 성장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5	2016 ^P					2017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1.1	-1.1	3.7	-4.5	-1.9	-1.8	5.9	-2.5(-0.6)
제조업	0.7	0.7	0.4	1.0	-0.4	1.8	2.1	-0.2(3.3)
서비스업	0.7	0.4	0.4	0.5	0.6	0.2	0.2	0.8(1.9)
(도소매 및 음식숙박)	0.8	0.4	-0.2	0.7	0.5	0.7	-1.1	0.3(0.4)
(금융 및 보험업)	1.3	0.6	0.4	0.3	0.7	0.9	0.3	2.0(4.0)
(부동산 및 임대)	0.2	-0.1	1.2	-0.6	0.1	-0.9	2.3	-0.5(0.9)
(보건 및 사회복지)	0.5	0.6	0.9	0.9	1.0	-0.5	-0.5	2.6(8.3)

주 1. 2016^P, 2017^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17년 중 경제성장률(GDP)은 전년 동기 대비 2.8%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금년중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는 향후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확대됨에 따라 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임금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경기지표 개선,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큰 폭 개선된 가운데 고용사정 호조 등으로 가계의 임금소득이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임.
 -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복지제도 확충 등 가계소득 증대 정책도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실질구매력 개선 제약, 이자지급부담 증가 등은 민간소비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및 IT업 호전 등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IT부문은 주력 품목인 낸드플래시, OLED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호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신규증설을 통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비IT부문의 경우 국제유가 불확실성 증대, 일부 품목의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유지·보수 위주의 투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 건물은 2016년 이후의 착공면적 감소, 비주거용 건물도 착공면적 감소 및 하반기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둔화가 예상됨.
 - 토목은 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출은 세계교역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2016	2017 ^{e)}		2018 ^{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8	2.8	2.9	2.8	2.8	3.0	2.9
민간소비	2.5	2.0	2.4	2.2	2.7	2.6	2.6
설비투자	-2.3	14.1	5.0	9.5	0.5	5.7	3.0
건설투자	10.7	9.9	3.7	6.5	-2.2	2.3	0.2
상품수출	2.2	4.3	2.7	3.5	3.4	3.8	3.6
상품수입	3.6	8.8	3.2	5.9	1.9	4.9	3.4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7.7.13.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를 참고함.

2. 2017^{e)}, 2018^{e)}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17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675만 명으로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각각 1.4%, 3.2% 증가함.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각각 0.3%, 40.5%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감소세 지속, 자영업자는 10개월 연속 증가함.
 - 도매 및 소매업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건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의 증가 전환 등으로 인해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 고용률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함.
- 2017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8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함.

3) 고용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7.6월 고용동향(2017.7.12.)」와 「최근경제동향(2017.7.11.)」, 통계청 보도자료 「2017년 6월 고용동향(2017.7.12.)」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2015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26,913	26,708	27,415	27,539	27,327	27,247	27,082	27,836	1.5
(경제활동참가율)	62.6	61.7	63.2	63.4	62.8	62.8	62.1	63.7	-
취업자	25,936	25,554	26,387	26,554	26,446	26,235	25,915	26,754	1.4
· 농림어업	1,345	1,038	1,419	1,413	1,276	1,286	1,013	1,423	0.3
· 광공업	4,500	4,561	4,522	4,458	4,460	4,500	4,453	4,502	-0.4
(제조업)	4,486	4,544	4,503	4,439	4,439	4,481	4,432	4,480	-0.5
· 건설업	1,823	1,748	1,829	1,882	1,921	1,845	1,880	1,986	8.6
· 도소매·음식숙박업	5,962	5,929	5,968	6,084	6,043	6,006	6,058	6,024	0.9
실업자	976	1,153	1,028	985	881	1,012	1,167	1,082	5.3
실업률(계절조정)	-	3.8	3.7	3.8	3.6	-	3.8	3.8	2.7

자료: 통계청

3. 소비⁴⁾

- 2017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 2017년 5월 소매판매 중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는 각각 3.3%, 1.2% 감소하며 전월 대비 0.9% 감소함.
- 국산 승용차 판매량 감소 등은 향후 소매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소비심리 개선 및 차량연료 판매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7.7.11.)」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소비동향

단위: %

	2015	2016					2017 ^P		
	연간	연간 ^P	1/4	2/4	3/4	4/4	1/4 ^P	4월 ^P	5월 ^P
민간소비	2.2	2.5	-0.1	0.8	0.6	0.2	0.4	-	-
소매판매	-	-	-0.2	2.0	-1.2	2.1	-0.5	0.7	-0.9
(내구재) ¹	10.0	4.5	-4.0	5.1	-5.8	5.6	-0.3	3.0	-1.2
(준내구재) ²	-1.1	2.5	-0.9	1.1	0.1	0.0	-1.3	1.7	-3.3
(비내구재) ³	3.1	4.7	2.5	0.6	1.1	1.0	-0.3	-1.1	0.2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6년^P, 2017년 1/4^P, 4월^P, 5월^P은 전망치임.

5.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7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9만 3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실질소득은 447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함.
- 근로소득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2%, 5.3% 증가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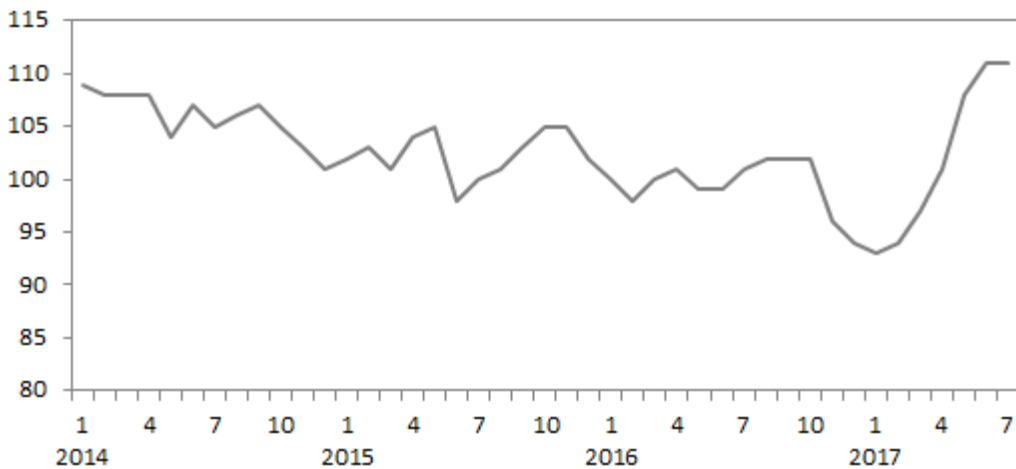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소득	1.6	2.6	2.9	0.7	0.9	0.6	0.8	0.8	0.7	0.2	0.8
경상소득	1.6	2.8	2.1	0.8	1.1	1.1	0.8	1.7	1.4	1.0	0.8
(근로소득)	1.6	3.8	1.7	0.1	0.9	1.0	0.3	1.9	1.9	0.4	0.0
(사업소득)	-1.9	-4.6	-2.1	-1.6	0.4	1.5	3.3	0.2	1.1	2.2	0.9
(재산소득)	0.1	17.9	-6.3	7.8	-18.2	-18.4	-21.0	-9.8	-31.9	-4.4	15.2
(이전소득)	9.4	10.4	15.2	11.5	4.7	2.1	0.7	3.8	0.4	2.9	5.3
비경상소득	1.6	-2.1	25.9	-4.7	-4.8	-14.5	2.3	-21.4	-23.4	-23.9	1.7

주: 소비지출자료는 2017년 1/4분기 자료부터 연간 공표로 변경되어 분기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 2017년 7월 소비심리지수⁵⁾는 111으로 전년 동월(101) 대비 9.9% 증가하고, 전월(111)과 비슷함.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물가⁶⁾

- 2017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2.7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함.
 - 농축산물은 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석유류는 산유국 감산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유생산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됨.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2017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17.7.4.)」, 통계청 「2017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17.7.4.)」, 한국은행 「2017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2017.7.19.)」, 「2017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2017.7.14.)」 자료를 참고하여 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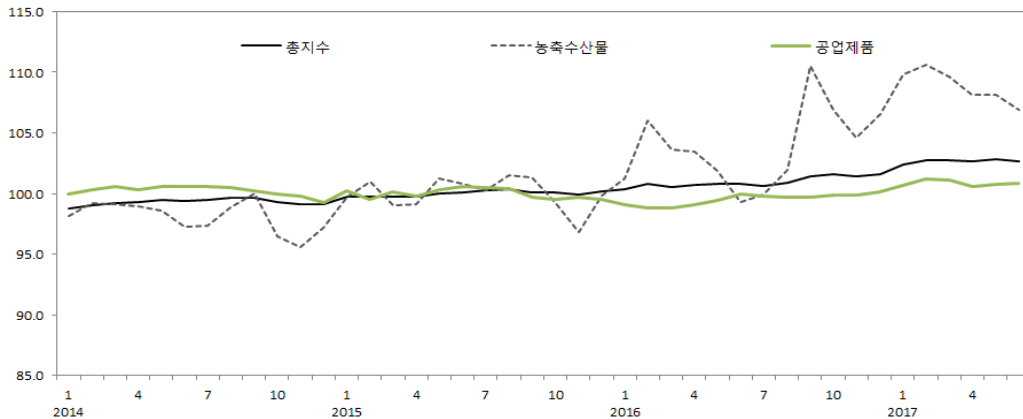
- 상품 및 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 2.0%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2.7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함.
 - 농축수산물물은 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지난해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 폭이 축소됨. 전기수도가스, 집세 등은 전월과 비슷함.
- 지출목적별로는 전월에 비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 의류·신발, 음식·숙박, 주류·담배는 상승하였음.
 -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교통, 기타상품·서비스 등 10개 부분은 상승하였고 오락·문화, 통신은 하락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1.0 (1.0)	100.6 (0.9)	100.8 (0.8)	101.0 (0.7)	101.5 (1.5)	102.7 (2.1)	102.7 (1.9)
상 품	99.4 (-0.6)	99.4 (-1.0)	99.2 (-1.0)	98.9 (-1.1)	100.2 (0.7)	101.4 (2.0)	100.9 (1.8)
농축수산물	103.8 (3.8)	103.7 (3.7)	101.5 (1.1)	104.2 (3.1)	106.0 (7.5)	110.0 (6.1)	107.7 (6.1)
공업 제품	99.5 (-0.5)	98.9 (-1.1)	99.5 (-0.7)	99.7 (-0.5)	100.0 (0.4)	101.0 (2.1)	100.8 (1.3)
서비스	90.8 (-9.2)	95.7 (-8.2)	92.4 (-7.0)	83.7 (-13.0)	91.4 (-8.7)	89.1 (-6.9)	90.3 (-2.4)
서 비 스	102.3 (2.3)	101.6 (2.4)	102.1 (2.4)	102.7 (2.2)	102.7 (2.1)	103.7 (2.1)	104.2 (2.0)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17년 2/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07.7로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2.1% 하락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5.9% 하락함. 채소류는 기저효과로 인해 배추, 마늘, 파 등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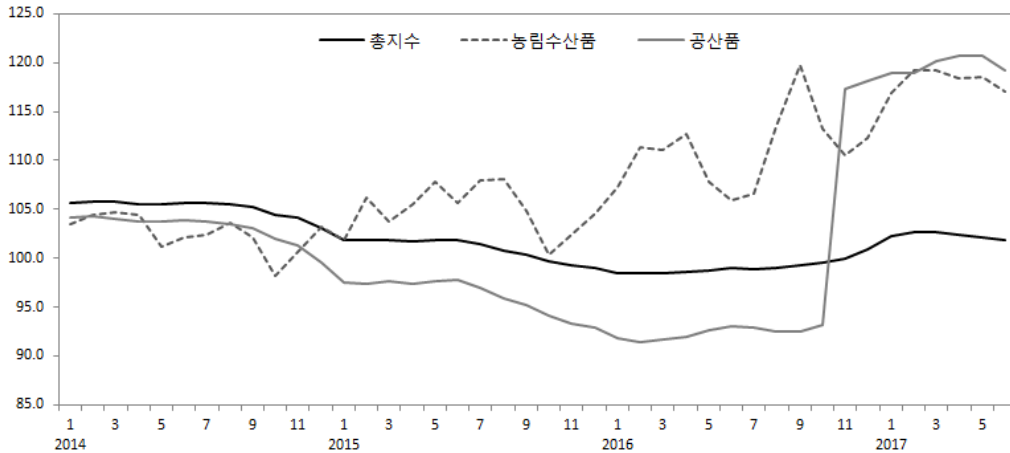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2016					2017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3.8	103.7	101.5	104.2	106.0	110.0	107.7	6.1	-2.1
농산물	103.8	105.7	100.4	103.3	105.9	110.6	104.1	3.6	-5.9
곡물	91.7	95.7	92.7	90.9	87.7	86.3	85.4	-7.9	-1.1
채소	116.9	119.0	107.0	118.0	123.7	126.4	102.1	-4.6	-19.3
과실	98.4	98.7	98.5	96.6	99.6	109.8	116.8	18.6	6.4
기타농산물	99.0	102.2	98.1	97.4	98.2	100.2	96.7	-1.4	-3.5
축산물	104.4	101.1	102.9	106.6	106.9	109.9	112.8	9.6	2.6
수산물	102.9	101.7	102.7	102.3	104.8	108.3	110.4	7.4	1.9

자료: 통계청

- 생산자물가지수는 2016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2.1로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함.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달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및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함.
 - 공산품은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1% 하락함.
 - 서비스는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6%, 0.5%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7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4.9로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5% 하락함.
- 6월 수출물가지수는 80.6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이 하락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8.7% 상승함.
- 2017년 2/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9.9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함. 6월은 103.6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 9.7% 상승함.

- 2017년 2/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4.8로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함.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80.8 (-3.2)	81.4 (-2.6)	79.9 (-4.7)	78.1 (-8.5)	83.6 (2.8)	86.2 (5.9)	84.9 (6.3)	80.5 (5.1)	80.6 (4.8)
농림수산물	101.9 (11.2)	98.7 (9.1)	102.0 (15.3)	102.6 (7.3)	104.4 (13.7)	104.8 (6.2)	109.9 (7.7)	102.7 (7.4)	103.6 (9.7)
농 산 물	145.6 (-0.1)	145.6 (2.5)	143.4 (1.8)	152.8 (-0.6)	140.6 (-4.2)	139.8 (-4.0)	149.7 (4.4)	144.0 (8.2)	144.6 (8.2)
공 산 품	80.7 (-3.4)	81.3 (-2.6)	79.8 (-4.8)	78.0 (-8.6)	83.5 (2.8)	86.1 (5.9)	84.8 (6.3)	80.4 (5.0)	80.5 (4.8)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7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0.7로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3.0% 하락함.
- 2017년 6월 수입물가지수는 79.8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9%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함.
 - 원재료의 경우, 광산물 등의 가격이 하락하여 3.5% 하락하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함.
 -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9%, 0.4% 상승함.
- 2017년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3.1로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하였으나, 전월과 비슷함.
 - 옥수수, 쇠고기 등의 수입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77.0 (-4.2)	75.8 (-7.1)	76.8 (-5.7)	75.0 (-7.7)	80.3 (4.0)	83.2 (9.8)	80.7 (5.1)	80.6 (4.1)	79.8 (2.3)
농림수산물	93.8 (-0.3)	93.2 (-3.8)	93.4 (0.9)	91.9 (-3.5)	96.5 (5.2)	97.9 (5.0)	93.7 (0.3)	93.0 (-1.3)	93.1 (-2.5)
농 산 물	82.2 (-3.3)	82.5 (-5.6)	82.2 (-2.1)	80.2 (-7.1)	83.9 (2.1)	86.8 (5.2)	81.4 (-1.0)	81.0 (-2.2)	80.4 (-4.1)
축 산 물	115.7 (0.6)	113.3 (-6.1)	113.7 (1.6)	114.9 (-0.1)	121 (7.7)	117.1 (3.4)	115 (1.1)	114.6 (-0.1)	116 (-1.0)
공 산 품	83.1 (-0.8)	84.0 (0.6)	83.4 (0.1)	81.1 (-5.1)	84.2 (1.6)	85.8 (2.1)	83.3 (-0.1)	82.9 (-1.2)	82.9 (-1.5)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17년 5월 중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함.
- 2017년 5월 중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3%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은 증가한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은 감소함.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5% 증가)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7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7.7.12.)」와 「2017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2017.7.12.)」, 「2017년 2/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2017.7.19.)」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2016										201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 ¹	18.0	16.2	15.9	13.8	13.0	12.9	12.5	12.5	12.4	11.7	9.7	10.6	9.9	9.5	
M2 ²	7.0	6.7	7.1	6.9	7.2	6.9	7.1	7.3	7.5	6.9	5.9	6.2	6.6	6.1	
M ³	8.0	7.7	7.9	7.6	8.0	7.8	8.1	8.2	8.1	8.0	7.4	7.3	7.4	7.1	
본원통화 ⁴	17.3	15.5	14.4	11.4	14.1	12.3	12.3	11.8	12.0	12.3	11.3	9.1	10.8	9.9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7년 6월 국고채(3년)금리는 주로 미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6월 상순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반등하여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전월 대비 1.2% 낮음.
 - 주요국 및 국내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반등함.
 - 회사채(3년)금리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하락후 반등함.

금리동향

단위: %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1.24	1.31	1.36	1.61	1.69	1.64	1.67	1.71	1.68	1.69	1.67
회사채 ¹	1.23	1.24	1.23	1.23	1.22	1.24	1.23	1.23	1.23	1.23	1.24
CD유통수익률(91일)	1.35	1.34	1.35	1.42	1.54	1.50	1.49	1.48	1.43	1.39	1.38
콜금리 ²	1.65	1.70	1.78	2.02	2.16	2.10	2.13	2.21	2.20	2.22	2.21

-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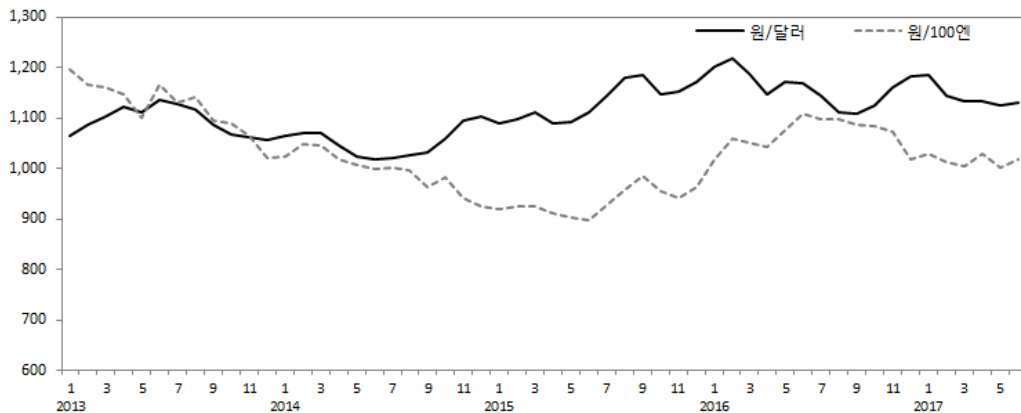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1,129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5원 하락하고, 원/100엔 환율은 2원 오른 1,017원임.
 - 원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좁은 범위내에서 등락하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원/유로 환율은 1,243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원 상승하고 원/위안 환율 165원으로 3원 하락함.
- 2017년 6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FOMC 결과 및 주요국 통화정책기조 변화 경계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상승한 1,130원을 나타냄.

원화 환율 동향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원/달러	1,131	1,161	1,201	1,163	1,121	1,157	1,154	1,129	1,125	1,130
원/100엔	935	1,068	1,043	1,076	1,095	1,058	1,015	1,017	1,003	1,019
원/유로	1,255	1,283	1,325	1,313	1,251	1,247	1,230	1,243	1,245	1,269
원/위안	180	174	183	178	168	169	168	165	164	166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유가 하락 등의 리스크가 상존함.
- 미국 경제는 5월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 건설관련 투자지표와 고용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5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6	1.6	0.8	1.4	3.5	2.1	1.4	-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3	-0.2	0.2	0.2	0.4	0.1	1.1	0.0
	소매판매(전기비)	2.3	3.0	0.0	1.5	0.9	1.7	1.0	0.1	0.4	-0.3
	실업률(계절조정)	5.3	4.9	4.9	4.9	4.9	4.7	4.7	4.5	4.4	4.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1	1.1	1.8	2.6	2.4	2.2	1.9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9	6.7	6.7	6.7	6.7	6.8	6.9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1	6.0	5.8	6.1	6.2	6.1	6.8	7.6	6.5	6.5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2	10.2	10.5	10.6	10.0	10.9	10.7	10.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2.1	2.1	1.7	2.2	1.4	0.9	1.2	1.5
일본	실질GDP(전기비)	1.2	1.0	0.5	0.4	0.2	0.3	0.3	-	-	-
	산업생산(전기비)	-1.2	-0.2	-1.0	0.2	1.6	1.9	0.1	-1.9	-1.9	-3.3
	소매판매(전기비)	-0.3	-0.7	-1.3	0.0	0.5	1.5	-0.2	0.2	0.2	-1.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0	-0.4	-0.5	0.3	0.3	0.2	0.2	0.4
유로 존	실질GDP(전기비)	2.0	1.7	0.5	0.3	0.4	0.5	0.6	-	-	-
	산업생산(전기비)	2.1	1.4	0.9	-0.1	0.4	0.9	0.0	0.2	0.5	-
	소매판매(전기비)	2.7	1.9	0.7	0.4	0.3	0.8	0.3	0.4	0.1	0.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0	-0.1	0.3	0.5	1.8	1.5	1.9	1.4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7.7.11.)」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중국 경제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5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이 조정을 받았으나,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유로존 경제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도 상승세(74개월 내 최고치)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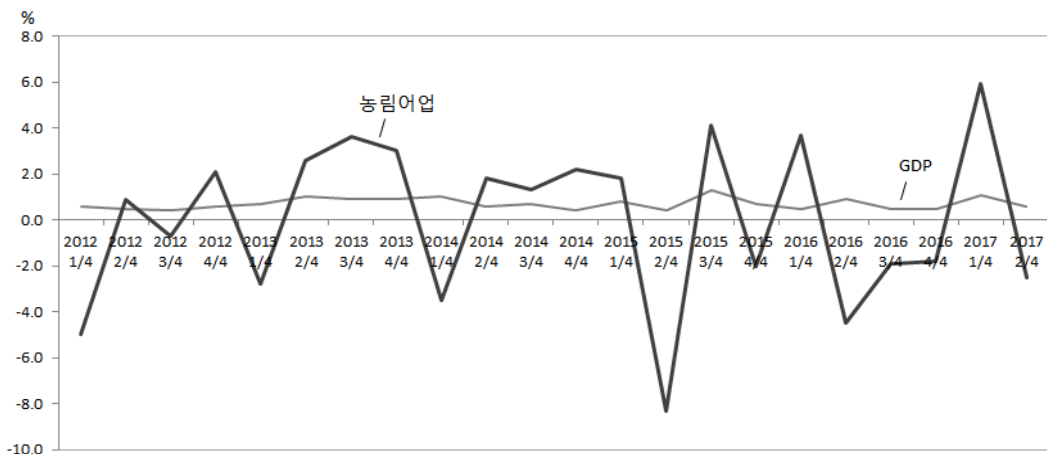
Ⅱ. 농촌경제 동향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17년 2/4분기 7조 82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함.
 - 2017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86조 5,65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6% 성장함.
 - 농림어업은 가뭄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1/4분기 대비 감소세를 보임.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6년과 2017년 1/4~2/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9)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노수정 연구원(nosu303@krei.re.kr),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7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8.2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 전분기 대비 7.1%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실과 축산류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곡물과 채소류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구 분	가중치	2015	2016		2017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3.8	113.4	123.7	115.0	127.3	118.2	2.8	-7.1
곡물	280.1	109.6	99.4	102.8	100.3	95.0	96.7	-3.6	1.8
-미곡	234.3	112.7	100.1	103.4	101.0	90.6	89.9	-11.0	-0.8
-맥류	5.5	144.0	146.8	140.8	146.3	134.6	141.8	-3.1	5.3
-두류/잡곡	23.9	73.3	80.9	84.9	81.7	115.9	146.3	79.1	26.2
-서류	16.4	106.9	100.3	107.7	102.8	113.2	105.7	2.8	-6.6
청과물	406.5	121.3	123.6	149.8	128.2	157.9	131.9	2.9	-16.5
-채소	268.9	103.2	107.4	122.7	106.3	107.2	102.6	-3.5	-4.3
-과실	137.6	156.6	155.4	202.7	170.9	257.0	189.0	10.6	-26.5
축산물	252.6	107.3	113.5	108.3	114.8	118.0	126.1	9.8	6.9
-가축	185.1	104.2	115.7	111.4	120.1	105.5	113.6	-5.4	7.7
-유란	67.5	115.9	107.4	99.6	100.2	152.4	160.2	59.9	5.1
기타농산물	60.8	110.9	108.8	109.2	95.0	109.8	93.2	-1.9	-15.1
-특용작물	42.4	120.2	117.0	114.2	98.2	116.1	95.3	-3.0	-17.9
-화훼	15.3	89.5	90.7	100.6	88.3	94.2	86.6	-1.9	-8.1
-부산물	3.0	88.6	86.2	84.3	84.3	100.8	96.2	14.1	-4.6

자료: 통계청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6.7로 기중치가 가장 큰 미곡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함.
 - 미곡은 일반미, 찰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 하락함.
 - 두류/잡곡은 팥, 검정콩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79.1%, 전분기보다 26.2% 상승함.
 - 서류는 고구마, 감자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8% 상승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6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전분기보다 4.3% 하락함.
 - 엽채류는 배추, 양배추를 비롯한 대부분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 전분기에 비해서는 34.7% 하락함.
 - 근채류는 무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9% 하락함.
 - 조미채류는 마늘, 파, 생강 등이 하락하였으나, 고추, 양파가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전분기 대비 85.0% 상승함.
 -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의 품목에서 하락이 있었지만 수박, 딸기, 방울토마토가 전년보다 상승하면서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99.8임.
- 과실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89.0으로 복숭아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사과, 배, 포도 등)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0.6% 상승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6.1로 전년 동기 대비 9.8% 상승하고, 전분기보다 6.9% 상승함.
 - 가축은 돼지와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상승한 반면, 한우 및 육우 축종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하락하였음.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3.2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전분기 대비 15.1% 하락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7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1.5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전분기 대비 1.3%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107.4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 전분기보다 3.0% 상승함.
 - 종자, 비료, 농약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5.2%, 2.4% 감소한 반면, 영농광열비, 농기구 등의 농업용품 가격은 상승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46.1로 전년 동기 대비 4.2%, 전분기 대비 2.7%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 전년 동기에 비해 4.3% 상승한 147.1이며, 농기계 임차료는 전년 동기에 비해 1.7%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

구 분	가중치	2015	2016		2017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9.0	109.3	108.5	109.4	110.1	111.5	1.9	1.3
가계용품	576.0	108.1	109.3	108.7	109.0	111.3	111.4	2.2	0.1
농업용품	376.9	107.3	105.6	104.8	106.1	104.3	107.4	1.2	3.0
-종자	29.3	139.3	133.6	133.8	133.8	122.2	122.6	-8.4	0.3
-비료	39.0	80.1	63.5	63.5	63.5	60.2	60.2	-5.2	0.0
-농약	29.9	124.2	123.3	123.3	123.3	120.4	120.4	-2.4	0.0
-농기구	64.0	119.5	119.9	119.5	119.5	127.0	128.0	7.1	0.8
-영농광열	26.7	85.3	71.0	67.0	69.1	81.4	79.7	15.3	-2.1
-가축	51.3	101.6	122.2	114.7	128.4	113.8	132.7	3.3	16.6
-사료	125.0	106.0	102.0	103.8	101.7	100.2	101.7	0.0	1.5
-영농자재	11.7	95.8	96.2	96.2	96.2	94.4	94.4	-1.9	0.0
농촌임료금	47.1	134.6	140.2	136.8	140.2	142.3	146.1	4.2	2.7
-농업노동임금	44.9	135.2	141.0	137.5	141.0	143.1	147.1	4.3	2.8
-농기계임차료	2.2	122.5	123.6	122.6	123.4	124.6	125.5	1.7	0.7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7년 2/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1.4%, 전분기보다 1.0% 상승한 108.8임.
- 2017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8.3%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모두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농가교역조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전분기 대비 채소와 과실 등의 하락으로 판매가격지수가 7.1% 감소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농가교역조건지수

구 분	2016		2017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23.7	115	127.3	118.2	2.8	-7.1
농가구입가격(B)	108.5	109.4	110.1	111.5	1.9	1.3
농업투입재가격	107.5	107.4	107.8	108.8	1.4	1.0
농가교역조건(A/B×100)	114.0	105.1	115.6	106.0	0.8	-8.3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3. 농림어업 취업자

- 2017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40.5%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2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며, 전분기 대비 0.6% 증가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83만 2천 명, 여성은 3.9% 감소한 59만 1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16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한 반면 전분기 대비 26.0%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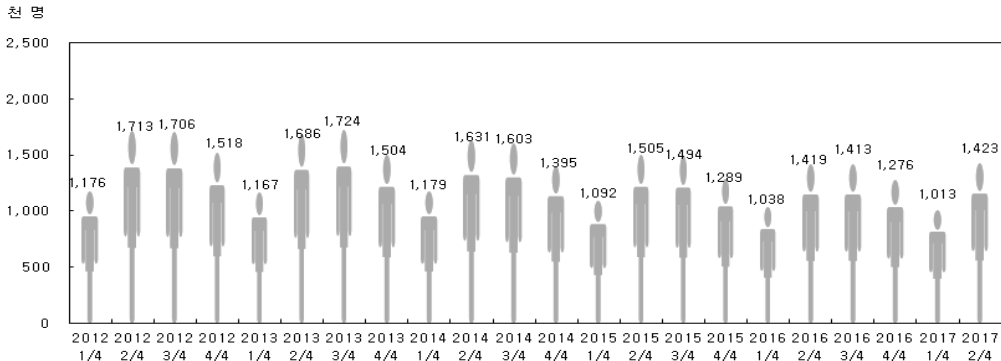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6		2017		증감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계절조정)	25,554 (26,156)	26,387 (26,115)	25,915 (26,522)	26,754 (26,484)	1.4	3.2
	농림어업 (계절조정)	1,038 (1,307)	1,419 (1,282)	1,013 (1,277)	1,423 (1,285)	0.3	40.5
	남성	647	804	655	832	3.5	27.0
	여성	391	615	358	591	-3.9	65.1
	농가	1,397	1,708	1,329	1,675	-1.9	26.0
	농가남성	832	953	807	945	-0.8	17.1
	농가여성	565	755	522	729	-3.4	39.7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 비해 늘어났으나, 2012년 하반기 이후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17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99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함.
 -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37.0% 감소하였으나, 임산물은 0.9%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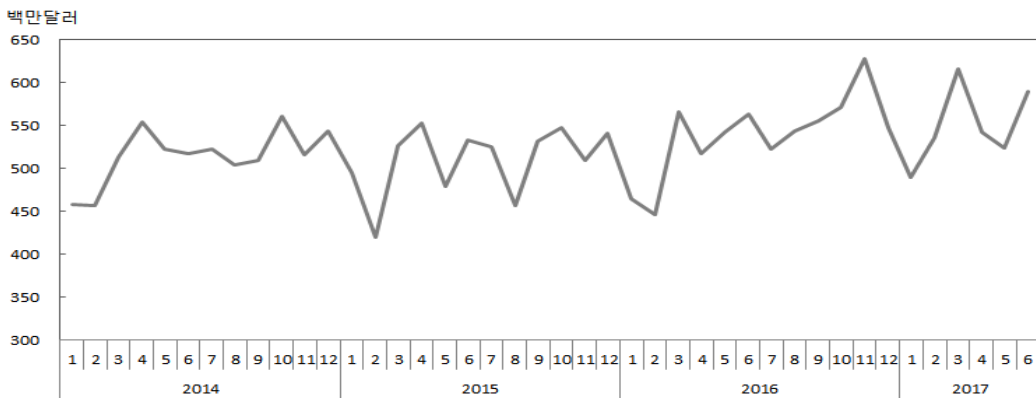
구 분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60	1,476	1,014	1,620	999	1,642	992	1,656	-2.1	2.2
농산물	658	1,295	772	1,397	742	1,458	759	1,466	-1.6	4.9
-곡류	9	8	9	8	49	17	12	9	34.9	12.9
-과실류	35	67	32	57	31	61	20	38	-36.7	-33.0
-채소류	26	82	34	85	21	86	42	89	24.2	3.9
축산물	27	99	30	115	17	78	19	83	-37.0	-28.0
-포유육류	1	8	1	5	1	3	0	3	-52.0	-50.4
-가금육류	7	10	8	10	1	3	1	3	-92.9	-73.9
-낙농품	7	34	9	42	8	35	8	25	-17.5	-40.2
임산물	174	81	212	108	241	106	214	107	0.9	-0.9
수 산 물	131	435	162	563	115	482	144	636	-10.9	12.9
전 체	991	1,911	1,175	2,183	1,114	2,124	1,136	2,292	-3.3	5.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7년 2/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 수출액은 농산물이 전년 동기에 비해 4.9% 증가한데 반해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28.0%, 0.9% 감소함.
 - 농산물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유자 등의 수출액 감소로 과실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3.0% 감소하였으나, 곡류는 12.9%, 채소류는 3.9% 증가함.

- 축산물에서는 포유육류는 전년 동기 대비 50.4%, 가금육류는 73.9%, 낙농품은 40.2% 감소함.
- 2017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5억 8,92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12.5% 증가하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4.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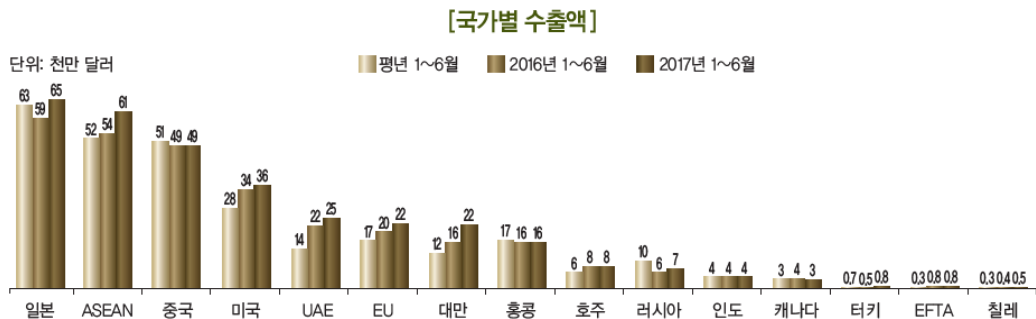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7년 6월까지 일본, ASEAN, 미국, UAE 등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그 중 일본으로의 누적 수출액(9.9%)이 크게 증가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2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7년 3/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전분기(104.2)에 비해 7.4% 상승한 111.9로 수출경기는 전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¹⁰⁾.
 -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 원재료 가격상승,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가 지적되었으나, 수출상담, 수출단가, 수출상품 제조원가 등을 중심으로 수출대상국과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4.2. 수입 동향

- 2017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1,334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데 반해, 축산물과 임산물 수입물량은 각각 7.7%,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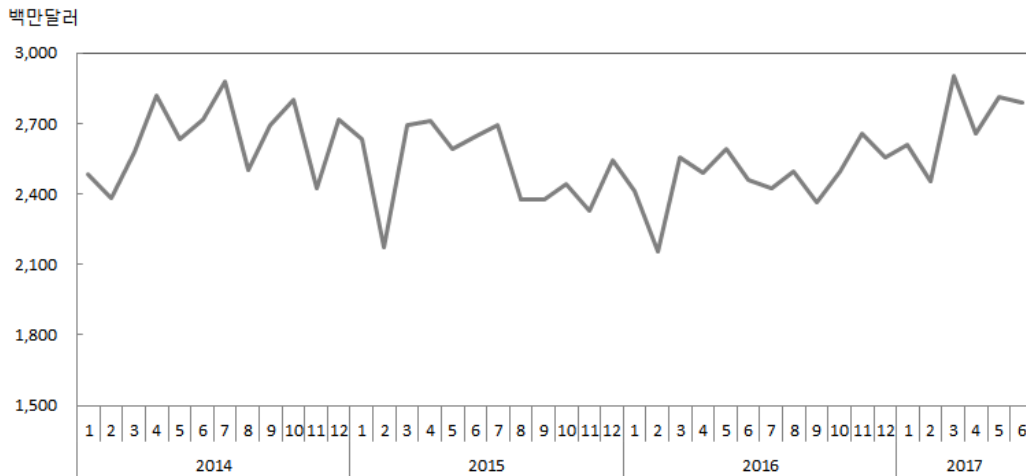
구 분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098	7,128	12,782	7,544	13,063	7,967	13,346	8,260	4.4	9.5
농 산 물	8,022	4,215	8,515	4,558	8,335	4,680	8,335	4,814	-2.1	5.6
-곡류	3,487	775	3,838	858	3,580	829	3,719	852	-3.1	-0.8
-과실류	301	444	353	601	339	519	381	646	8.0	7.5
-채소류	277	218	250	224	313	232	287	236	14.9	5.3
축 산 물	379	1,398	381	1,396	419	1,668	411	1,634	7.7	17.0
-포유육류	233	935	221	884	258	1,141	245	1,038	10.6	17.5
-가금육류	27	62	35	73	34	71	31	72	-11.3	-0.9
-낙농품	60	181	62	188	74	236	74	250	19.9	32.8
임 산 물	3,698	1,515	3,885	1,590	4,309	1,619	4,600	1,812	18.4	14.0
수 산 물	1,182	1,147	1,283	1,131	1,265	1,263	1,383	1,259	7.8	11.4
전 체	13,281	8,275	14,065	8,674	14,328	9,230	14,729	9,520	4.7	9.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0) 한국무역협회, '2017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7.06.21).

- 2017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5% 증가함.
 - 모든 부류에서 수입액이 증가하여 농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5.6% 증가하였고, 임산물과 축산물도 각각 17.0%,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중 곡류의 수입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채소류(김치, 마늘, 고추 등)와 과일류(바나나, 키위, 오렌지 등)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7.5% 증가함.
 - 축산물 중에서는 포유육류와 낙농품의 수입액 증가가 나타남.
- 2017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7억 9,18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0.7%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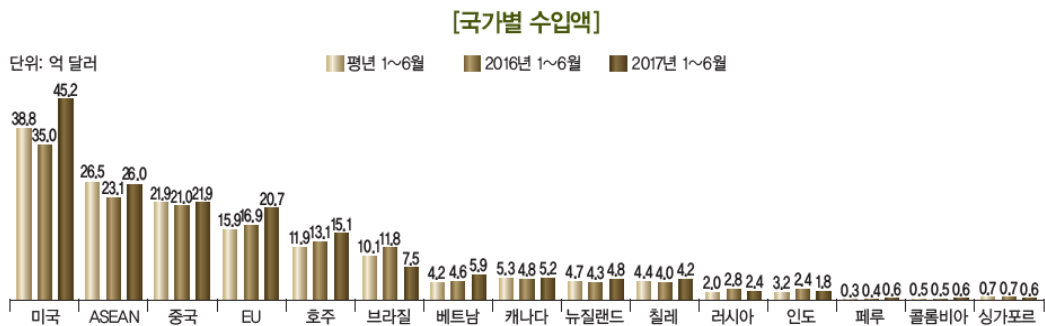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7년 6월까지 미국, ASEAN, 호주, 중국, EU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산 누적수입액(29.2%)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부류별로 과일·채소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8%, 축산물 17.4% 증가하였고, 곡물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게 나타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2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4.3. 순수입 동향

- 2017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1,235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물량은 757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함.
 - 축산물 순수입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11.6% 증가한 39만 2천 톤임.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768	5,924	12,354	6,604	5.0	11.5
농 산 물	7,743	3,160	7,576	3,348	-2.2	5.9
축 산 물	351	1,281	392	1,551	11.6	21.1
임 산 물	3,673	1,482	4,386	1,705	19.4	15.1
수 산 물	1,121	567	1,239	623	10.5	9.9
전 체	12,889	6,491	13,592	7,227	5.5	11.3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7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66억 400만 달러임.
 - 모든 부류에서 순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농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 축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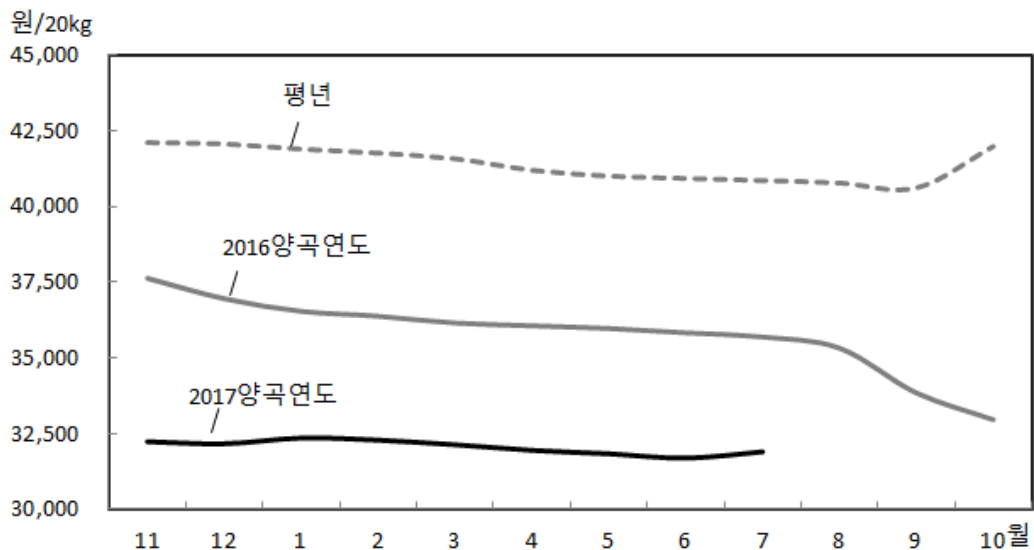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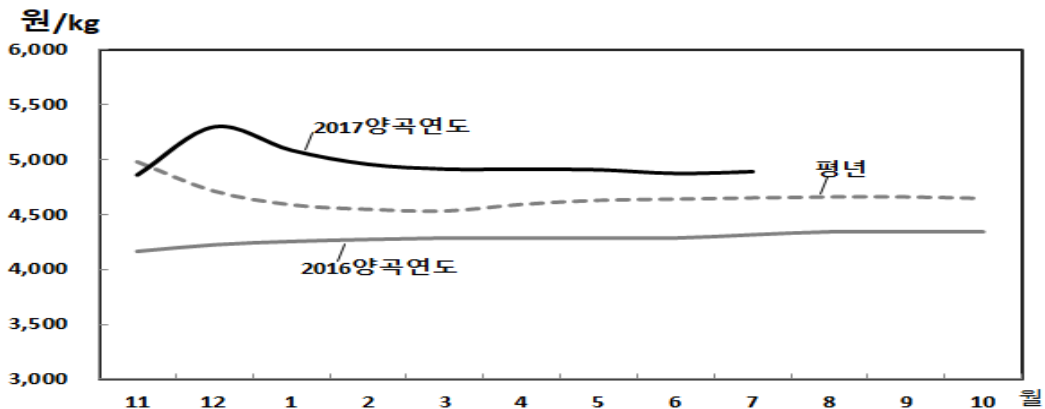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종진 연구위원(jkim@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in@krei.re.kr), 윤종열(jyoon0712@krei.re.kr), 김지연 전문연구원(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윤승원(yse887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17년 2/4분기 동향
 - 정부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확기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역계절진폭에 의한 산지유통업체의 심리적 불안감과 재고부담이 큰 업체들의 저가출하 확대로 산지 쌀 가격은 2/4분기에도 약보합세 지속
 - 다만,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시장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세는 다소 둔화
 - 2016년산 6월 평균 쌀 가격은 3만 1,692원/20kg으로 전년 대비 11.5%, 수확기 대비 2.3% 하락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7월 평균 쌀 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한 3만 1,900원/20kg으로 이는 추가 시장격리에 대한 기대심리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감소로 저가출하가 줄었기 때문이며 이에 쌀 가격은 당분간 강보합세 유지 전망
 - 다만, 구곡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고 8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신곡(조생종) 작황도 호조를 보여 향후 큰 폭의 가격상승은 제한 전망

1.2. 콩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간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2017년 2/4분기 국산콩 도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1.7% 하락한 4,899원/kg임.
 - 경기침체에 따른 콩 가공품 소비 감소로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보합세 지속
 - 하지만 6월 하순 이후 생육에 좋지 않은 기상여건(장마 및 폭염 등) 지속에 따른 2017년산 작황부진 우려로 강보합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7월 국산콩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0.3% 상승한 4,891원/kg임.
 - 생육에 좋지 않은 기상여건 지속에 따른 2017년산 작황부진 우려로 국산콩 가격은 강보합세 지속 전망
 -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같은 가격 하락요인도 존재하며, 향후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추이가 달라질 수 있음.
- 정부재고 방출 동향
 - 정부는 국산 콩 가격이 평년 및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2015년산 등 정부 수매 콩 5,074톤을 방출
 - 평균 낙찰 단가는 3,541원/kg으로 국산 콩 도매가격의 72.3% 수준임. 다만 6월 이후 낙찰단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정부재고 방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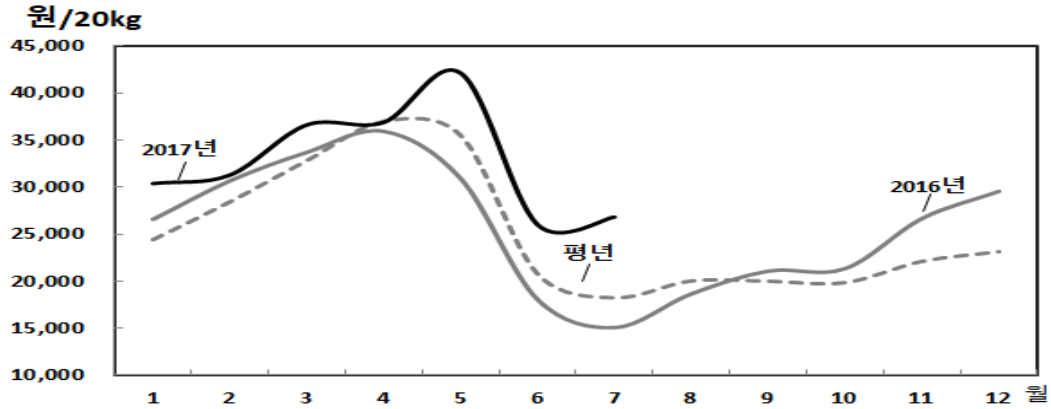
단위: 톤, 원/kg

방출 일시	낙찰(방출)물량	낙찰단가
4/11	12	3,390
4/25	851	3,460
5/16	808	3,435
5/30	992	3,450
6/8	41	3,397
6/13	688	3,552
6/27	562	3,686
7/11	731	3,684
7/25	391	3,689
계	5,074	3,541

자료: aT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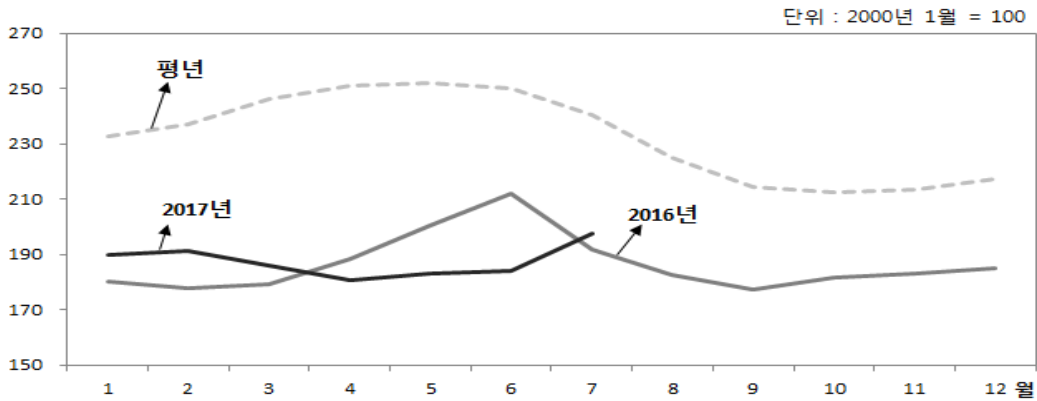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수미 평균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20kg당 34,996원임.
 - 2/4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3.7%, 평년 동기 대비 12.6% 높은 수준
 - 노지 봄감자 생산량은 가뭄에 의한 작황부진으로 전년보다 16.8%, 평년보다 2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노지 봄감자 재배면적: 전년보다 2.1% 감소한 14,943ha
 - * 노지 봄감자 단수: 전년보다 15.0%, 평년보다 14.8% 감소한 2,193kg/10a 전망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미 도매가격은 20kg당 26,82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1%, 평년 동기 대비 48.0% 높은 수준임.
 - 3/4분기 가격은 2017년산 고랭지 감자 생산량 감소 전망으로 전년 동기 및 평년 동기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7년 2/4분기 동향
 - 2017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3.4% 하락한 182.6임.
 - 남미지역의 풍부한 공급 여건으로 콩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미국의 양호한 기상여건이 국제곡물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단, 6월부터 시작된 미국 주산지의 기상여건 악화로 가격 하락폭이 제한됨.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7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지역의 고온 건조한 기상 지속으로 전월 대비 7.4% 상승한 197.8임.
 - 단, 2017/18년 주요 곡물의 수급상황은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곡물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8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¹²⁾는 -0.80으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단계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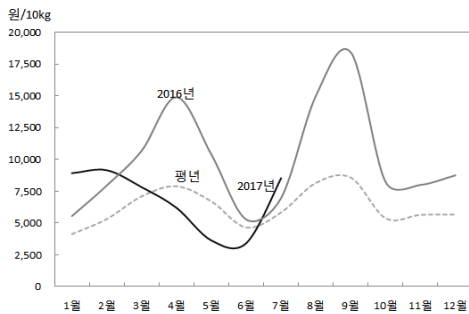
1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 2017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전분기 대비 7.6% 상승한 196.4로 전망됨. 이는 미국 기상 악화에 따라 밀, 콩 등 대부분의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요 밀 생산국인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도 기상 악화로 인한 밀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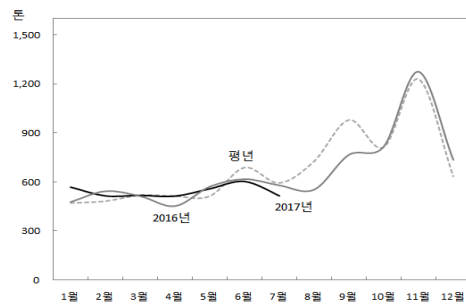
2. 엽근채소¹³⁾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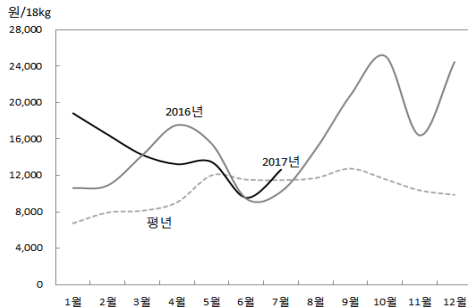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저장량이 작년 대비 늘었고, 봄배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57% 낮고 평년보다는 31% 낮았음.
 - 겨울배추 저장 출하시기인 4월 가격은 6,210원/10kg으로 평년 대비 21% 낮은 수준이었으나, 시설봄배추가 출하되면서 5월 3,660원/10kg으로 평년 대비 45% 하락했고 6월은 3,460원/10kg까지 하락함.
 - * 2/4분기 가격: (2017년) 4,410원/10kg, (2016년) 10,180원, (평년) 6,420원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8~10%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7~1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6~7% 증가한 4,649~4,676ha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노호영 전문연구원(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동규(cafe022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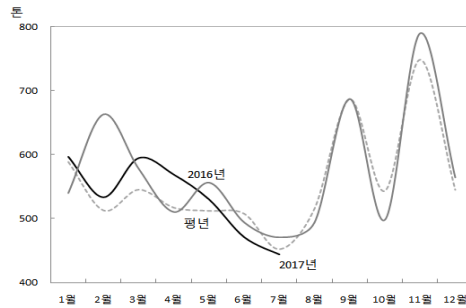
- * 고랭지배추 단수: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작년보다 2~3% 증가한 3,116~3,157kg/10a로 조사
- 2017년 3/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으나, 작년보다 낮을 전망
- * 2/4분기 출하량은 고랭지배추 단수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과 비슷할 전망. 특히 8월 상·중순 출하 물량은 고온 및 강우로 작황 부진
- 2017년 가을 및 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7년 가을 및 겨울배추 재배의향은 작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각각 8%, 5% 내외 증가 전망
 - 가을배추 주산지인 충청은 4% 증가, 호남과 경기·강원에서 10% 내외 증가할 전망
 -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과 진도에서 각각 5%씩 증가할 전망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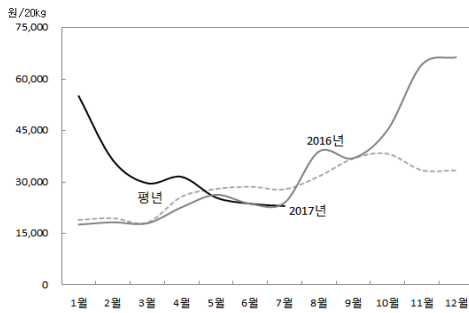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4% 낮은 12,120원/18kg임.
 - 2/4분기 가격은 봄무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
 - * 2017년 가격: (4월) 13,380원/18kg, (5월) 13,420원, (6월) 9,550원
 - * 2/4분기 가격: (2017년) 12,120원/18kg, (2016년) 14,120원, (평년) 10,8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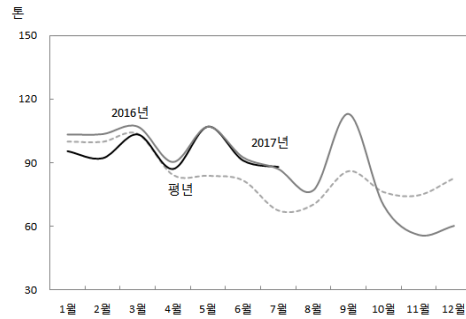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노지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3~7% 증가한 8만 6천~9만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9% 증가한 973ha, 단수는 작년보다 2~6% 감소한 8,866~9,263kg/10a
 - * 6월 주 출하되는 터널봄무 작황은 양호한 편이나, 7월 출하되는 노지봄무 작황은 7월 고온과 집중호우로 크게 부진
 - 2017년 고랭지무 생산량 작년보다 13~17% 증가한 5만 1천~5만 3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9% 증가한 1,879ha, 단수는 작년보다 4~8% 증가한 2,726~2,828kg/10a
 - * 8월 주출하되는 준고랭지1기작 작황은 7월 기상악화로 작년 동기보다 나쁘나, 9월부터 출하되는 고랭지무는 고온·가뭄으로 작황이 크게 부진하였던 작년 동기보다는 양호
 - 3/4분기 무 출하량은 고랭지무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많을 전망
 - * 7~8월 출하량은 노지봄무 및 준고랭지1기작 작황부진으로 작년보다 2% 내외 감소
 - * 9월 출하량은 고랭지무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18% 증가
 - 3/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15,450원/18kg)과 비슷할 전망
 - * 7~8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으나, 9월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2017년 가을 및 월동무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6% 증가 전망
 - 2017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11~12월)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조사
 - * 재배면적 모형 추정결과,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분석
 - 2017년산 월동무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12월~익년 5월)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조사
 - * 재배면적 모형 추정결과, 작년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분석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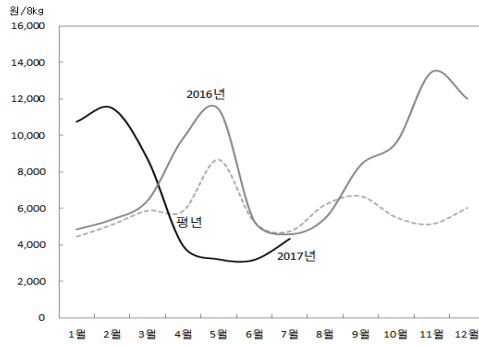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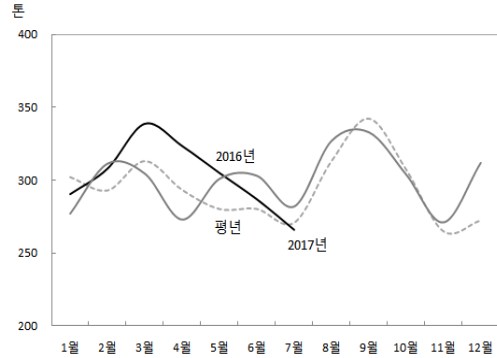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도매가격은 태풍피해로 겨울당근 생산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높게 형성
 - 2/4분기 당근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7,01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상승함.
 - * (2016년 2/4분기) 24,200원/20kg, (평년 2/4분기) 27,470원/20kg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도매가격은 겨울당근 저장량이 평년보다 적으나, 봄당근 생산량이 증가하여 상품 20kg 기준으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 (2016년 3/4분기) 33,150원/20kg, (평년 3/4분기) 32,060원
- 2017년 가을·겨울당근 재배(의향)
 - 2017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3% 증가할 전망
 - 2017년 겨울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2016년 11월~2017년 4월)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5% 증가할 전망
 - * 재배면적 모형 추정결과,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분석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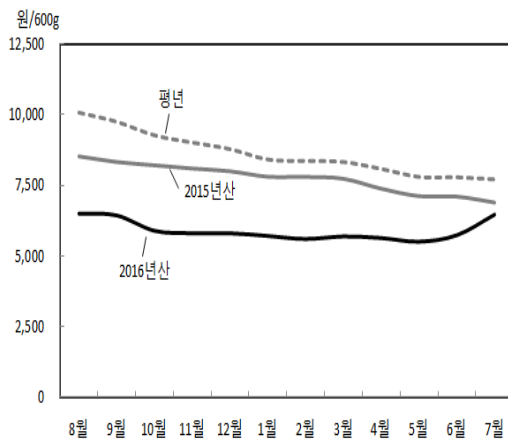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봄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게 형성
 - 2/4분기 양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3,40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62%, 48% 하락함.
 - * (2016년 2/4분기) 8,850원/8kg, (평년 2/4분기) 6,580원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도매가격은 고랭지 양배추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작황이 나빠져 상품 20kg 기준으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 (2016 3/4분기) 6,050원/20kg, (평년 3/4분기) 5,860원
- 2017년 가을·겨울양배추 재배(의향)
 - 2017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정식기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5% 증가할 전망
 - 2017년 겨울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2016년 12월~2017년 5월)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3% 증가할 전망
 - * 재배면적 모형 추정결과, 작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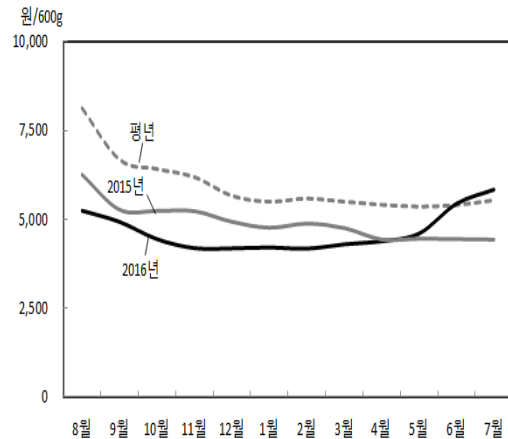
3. 양념채소 14)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1년 8월~2016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7년 2/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2/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22%, 29% 낮은 5,625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 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11% 낮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8% 높은 4,803원이었음.

- * 도매가격: (금년) 5,625원/600g, (전년) 7,201원, (평년) 7,890원

- * 산지가격: (금년) 4,803원/600g, (전년) 4,437원, (평년) 5,386원

- 2016년산 생산량 감소로 공급량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은 전년보다 많았음.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연구원이 작성함.

- 2017년산 건고추 생산 동향
 - 2017년산 재배면적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2016년산보다 11% 감소한 2만 8,543ha로 추정
 - 2017년산 고추 생육은 초기 고온과 가뭄으로 전년산보다 부진
 - * 2017년산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7. 20), 2016년산 대비 ' 좋음' 8%, '비슷' 42%, '나쁨' 50%
 - * 정식 후 지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생육이 더딘데다, 7월 장마와 고온으로 병충해 발생률이 전년과 평년보다 높아 생육은 다소 부진

2017년산 고추 전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경기·강원	5.5	50.8	43.7
총 청	7.3	37.9	54.7
호 남	9.6	40.0	50.3
영 남	6.8	41.9	51.3
전 국	7.6	42.0	50.4

자료: 농업관측본부,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7년산 건고추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 전망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결과(7. 20), 2017년산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감소한 252kg으로 전망
 - * 농업관측본부 단수예측모형 및 기상패턴을 분석한 결과, 10a당 수확량은 253~264kg으로 추정
- 2017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2016년산과 평년보다 감소한 7만 2천~7만 5천 톤으로 전망

2017년산 건고추 추정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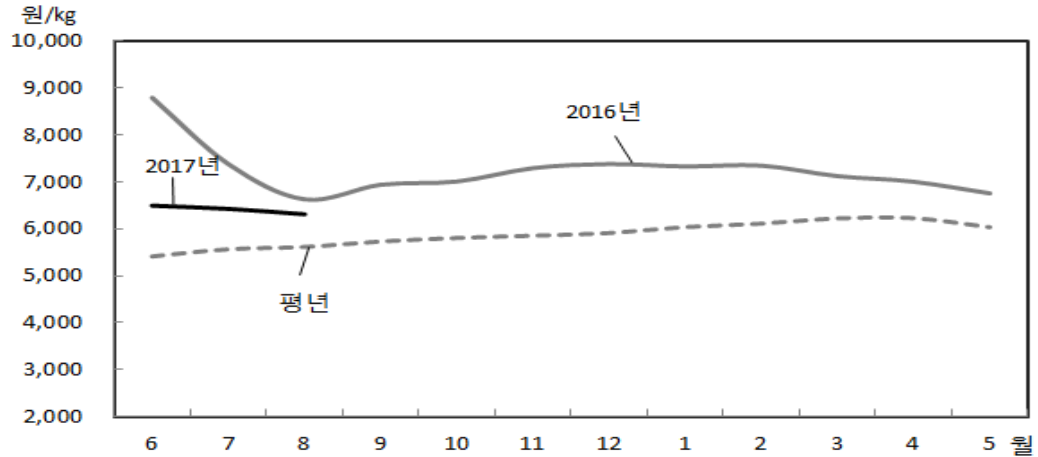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	28,543	252~264	71.9~75.3
2016	32,179	266	85.5
평년	38,665	254	98.2
전년 대비	-11.3	-5.1~-0.6	-15.9~-11.9
평년 대비	-26.2	-0.7~4.0	-26.8~-23.3

주: 2017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7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6% 낮으나, 전월보다 13% 높은 6,465원임.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월과 전년 각각 7%, 32% 높은 5,830원임.
 - * 2017년산 가격 상승 기대로 저장 건고추 출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7년산 생산량 감소로 햇건고추 출하량이 적어 건고추 3/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6,610원/600g) 대비 강세 전망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2년 6월~2017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간마늘 도매가격은 2016년산 재고량 및 2017년산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26% 낮았음.
 -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6,750원/kg, (전년) 8,649원/kg, (평년) 5,817원/kg
 - * 월별 도매가격: (4월) 7,003원/kg, (5월) 6,754원/kg, (6월) 6,492원/kg

- 2017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17년산 마늘 생산량은 단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0% 증가한 30만 3천 톤임(통계청, 7. 21).
 - *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한지형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5,304ha, 난지형이 19% 증가한 19,560ha임.
 - * 2017년산 마늘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 평년보다 각각 8%, 6% 감소한 1,221kg임.

2017년산 마늘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	24,864	1,221	303,578
2016	20,759	1,327	275,549
평년	24,831	1,305	324,023
전년 대비	19.8	-8.0	10.2
평년 대비	0.1	-6.4	-6.3

자료: 통계청

-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저장 동향
 - 표본 조사치와 모형 분석치를 감안한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9만 4천~9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 내외 증가 전망
 - * 농업관측본부 저장업체 표본 조사 결과(7. 20),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남도종 위주로 전년 대비 2% 증가
 - * 마늘 입고량 모형 분석 결과,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2% 증가
 - 2017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3,750원/kg 내외로 남도종 가격이 높았던 전년 대비 13% 낮은 수준
 - * 대서종 입고가격은 4,200원/kg 내외로 전년 대비 11% 상승, 남도종은 3,300원/kg 내외로 전년 대비 33% 하락

2017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입고량

단위: 톤, %

연산	2017	2016	전년 대비
조사치	94,389	92,973	1.5
추정치	95,241	92,973	2.4

자료: 농업관측본부, 7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및 추정치.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2017년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5% 낮았음.
 - 8~9월 마늘 가격은 난지형 대서종 산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낮으나, 7월 대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2017년 대비 감소
 -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생산비 상승으로 남도종 재배의향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5% 감소 전망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7. 20),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생산비 증가로 전년 대비 2% 감소 전망
 -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4%, 난지형은 2% 감소(난지형 중 대서종은 비슷, 남도종은 4% 감소) 전망
 - * 재배면적반응함수 추정 결과,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5% 감소 전망
 - 조사치와 모형 추정치를 감안한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3,680~24,364ha로 전년보다 2~5% 감소하나, 평년보다 0~3% 증가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9.8	-2.7	-3.4	-4.1	-	-3.6
난지	14.3	11.3	-3.8	-0.9	-5.7	-1.8
전체	-9.2	5.6	-3.8	-1.5	-5.7	-2.1

자료: 농업관측본부, 7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018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18	23,680~24,364
2017	24,864
평년	23,728
전년 대비	-4.8~-2.0
평년 대비	-0.2~2.7

주: 2018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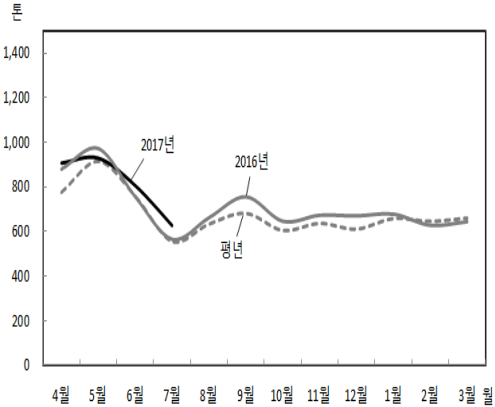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2년 4월~2017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이 감소로 전년 대비 23% 높은 상품 kg당 1,041원이었음.
 - 월별로 4월 가격은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17% 낮은 1,470원이었음. 5월과 6월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시장 반입량이 줄어 전년보다 63% 상승한 1,028원이었음.
- 2017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7년산 양파의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2% 감소한 1만 9,538ha임.
 - 2017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2016년산보다 12% 감소한 114만 4천 톤(통계청, 7. 21).
 - * 2017년산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6% 감소한 5,858kg임.

2017년산 양파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		19,538	5,858	1,144
2016		19,896	6,528	1,299
평년		20,157	6,251	1,260
증감률	전년 대비	-1.8	-10.3	-11.9
	평년 대비	-3.1	-6.3	-9.2

자료: 통계청

- 2017년산 양파 저장 동향
 - 2017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와 입고가격 상승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3%, 11% 감소한 55만 3천 톤으로 추정됨.
 - 저장업체 평균 입고가격은 전년(600원) 및 평년(670원)보다 높은 kg당 850원 내외로 추정됨.

2017년산 양파 추정 입고량

단위: 천 톤, %

2017년산	2016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553	632	620	-12.5	-10.9

자료: 농업관측본부, 7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62%, 전월(1,080원) 대비 8% 높은 1,170원이었음.
 - 8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입고량이 줄어 전년(851원) 및 전월(1,17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17년 대비 증가
 - 2018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7년산 양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19,952~20,773ha 전망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7. 20), 2018년산 양파 재배의향은 전년보다 2% 증가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3%, 중만생종은 2% 증가
 - * 재배면적반응함수 추정 결과, 2018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6% 증가 전망

2018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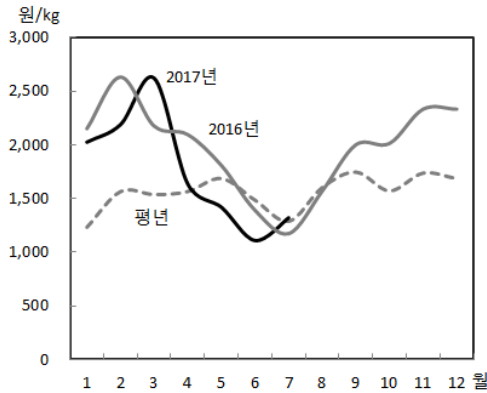
단위: 천 ha, %

연산		재배면적
2018		20.0~20.8
2017		19.5
평년		19.7
증감률	전년 대비	2.1~6.3
	평년 대비	1.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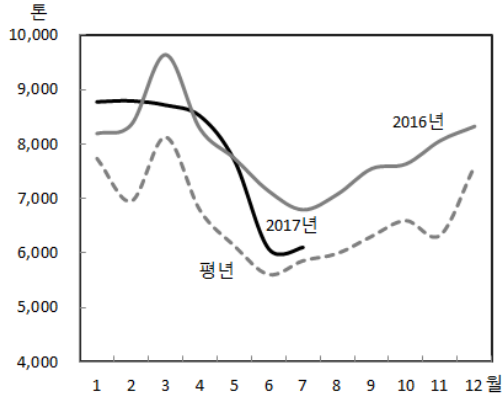
주: 2018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2년 1월~201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대파 2/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387원(중품 1,110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1%, 12% 낮았음.
 - * (금년) 1,387원/kg, (전년) 1,763원, (평년) 1,578원
 - * (4월) 1,634원/kg, (5월) 1,418원, (6월) 1,108원
 - 4~6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평년 대비 20% 많았음.
 - 2/4분기 가격은 주산지 재배면적 증가로 봄대파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신선 대파 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하여 하락세를 보였음.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1,320원/kg으로 전년과 전월보다 각각 13%, 19% 높았음.
 - 3/4분기 출하량은 생육부진으로 8월까지 출하량은 감소하나, 기상여건이 양호하면 9월 이후 출하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가격은 경기·강원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7월 잦은 비와 고온

으로 뿌리썩음 등이 발생하여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여름, 고랭지,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0%, 4%,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배면적반응함수 분석 결과는 전년 대비 각각 18%, 12%, 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재배면적 증가로 여름, 고랭지, 겨울대파가 출하되는 내년 5월까지 대파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

대파 주요작형(여름, 고랭지, 겨울)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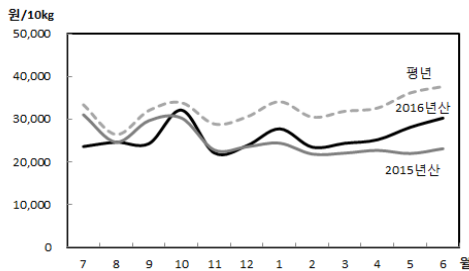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6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경기 (여름)	표본조사	1,612	1,460	1,534	10.4	5.1
	모형분석	1,726			18.2	12.5
강원 (고랭지)	표본조사	642	617	851	4.1	-24.6
	모형분석	689			11.7	-19.0
전남 (겨울)	표본조사	3,542	3,174	3,343	11.6	6.0
	모형분석	3,424			7.9	2.4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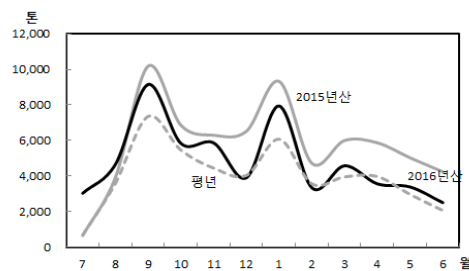
4. 과일¹⁵⁾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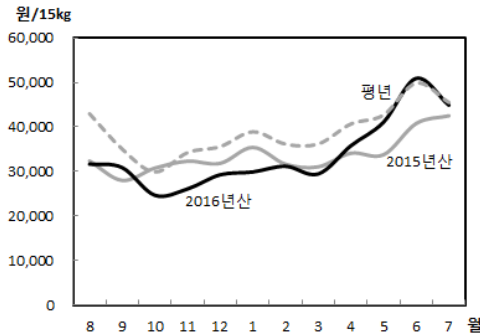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저장사과인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7,800원으로 전년보다 23% 높았음. 이는 2016년산 사과 저장량이 적어 반입량이 전년보다 38%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햇사과인 쓰가루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19%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8,100원이었음.
 - 8월 햇사과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4% 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8월 쓰가루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3% 적으나, 평년보다는 9% 많은 56만 1천 톤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 증가하였으나, 착과수 감소와 우박 및 가뭄 영향으로 단수가 전년보다 4%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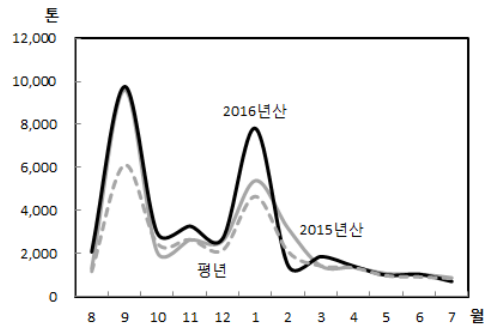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홍승표(ci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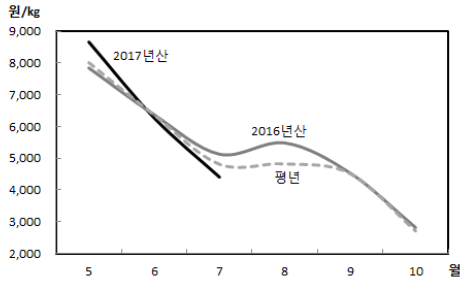
주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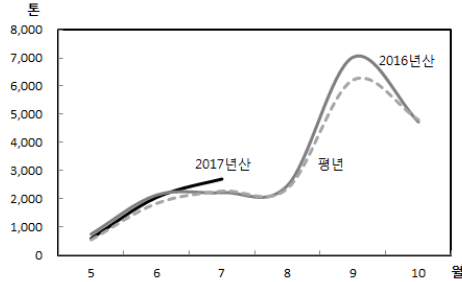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저장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18%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2천 원이었음.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전년보다 4% 높고, 평년보다는 16%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5천 원이었음.
 - 8월 조생종 원황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2%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9월 이후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1% 적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3만 5천 톤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3% 감소하였으나, 착과수 및 봉지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생육이 원활하여 단수는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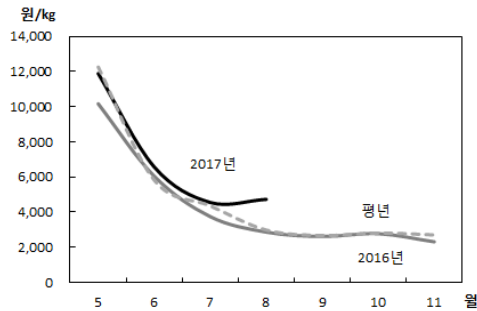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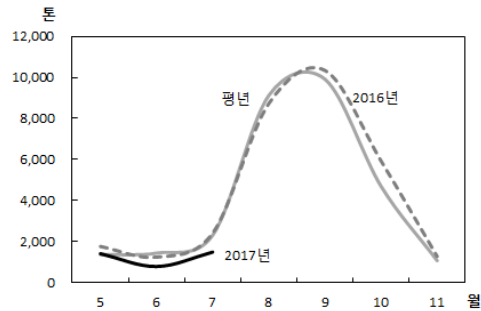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1% 높은 kg당 6,810원이었음.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4,410원으로 전년(5,130원)보다 낮았음. 이는 직거래 소비가 부진함에 따라 도매시장 반입량이 전년보다 22% 증가했기 때문임.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3% 감소하나, 9월 이후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올해는 추석이(10.4) 늦어 9월에 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46만 2천~49만 3천 톤으로 전망됨. 노지온주 재배면적은 1% 감소하나, 생육이 좋아 단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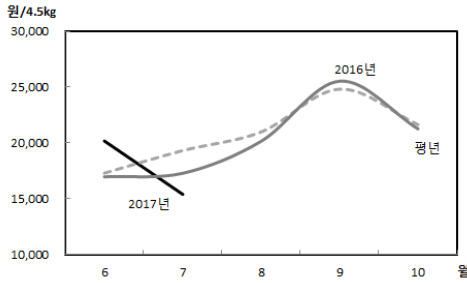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2~16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0월 캠벨얼리, 11월 MBA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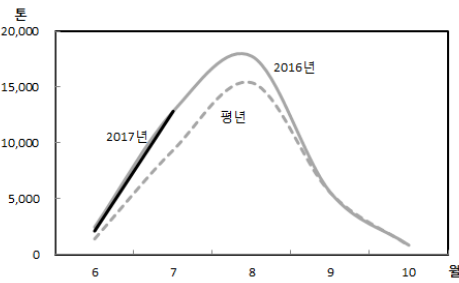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거봉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7% 높았고, 델라웨어도 2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17% 높았음. 이는 재배면적 감소로 포도 출하량이 전년보다 적었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거봉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2천 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음. 이는 출하량은 감소하였으나, 생육기 가뭄으로 전년보다 포도 알 크기가 작았으며, 7월 상·중순에 산도가 높은 거봉이 출하되었기 때문임.
 - 7월 캠벨얼리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kg 상자에 9,10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 4% 높았음. 이는 캠벨얼리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기 때문임.
 - 8~9월 포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각각 13%, 15% 적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21만 7천 톤으로 전망됨. 이는 FTA폐업지원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2% 감소하였고, 생육기 고온 및 가뭄으로 단수가 전년 대비 1% 감소하였기 때문임.

4.5.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2~16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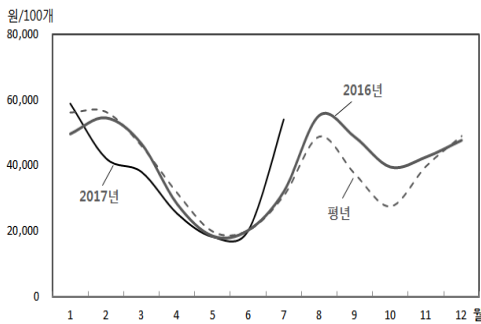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6월 천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200원으로 전년보다 18% 높으나, 평년보다는 2% 낮았음. 이는 주산지인 경북의 가뭄으로 단수가 줄어 반입량이 전년보다 14%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38%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9,400원이었으며, 백도(유모계)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아 상품 4.5kg 상자에 전년보다 11% 낮은 1만 5,400원이었음.
 - 8월 레드골드(천도계)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줄어 전년보다 높겠으며, 천중도(유모계)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7% 많은 30만 8천 톤으로 전망됨.
 - 천도계 생산량은 7월에도 지속된 가뭄으로 과 크기가 작아 전년보다 3% 감소하겠으나, 유모계 생산량은 최근 식재된 유목의 성목화 비율 증가로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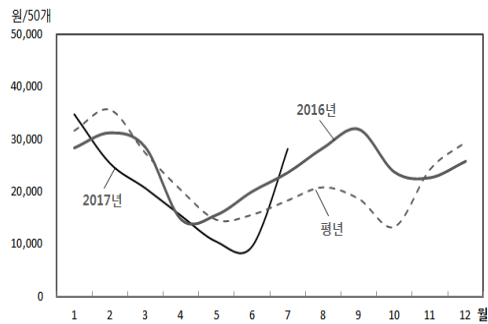
5. 과채¹⁶⁾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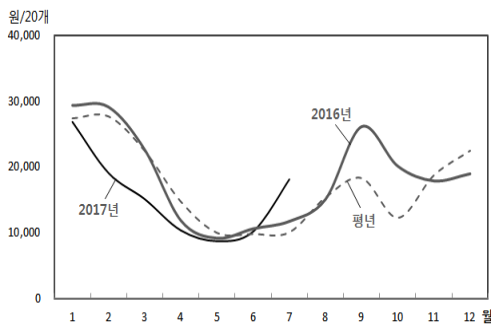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4월 2만 5,300원, 5월 1만 8,200원, 6월 2만 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2만 1,2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낮았음.
 - 백다다기오이 2/4분기 반입량은 재배면적 확대와 작황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3% 많았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4월 1만 5,400원, 5월 1만 400원, 6월은 9,5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대체품종인 백다다기오이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낮은 1만 1,800원이었음.

1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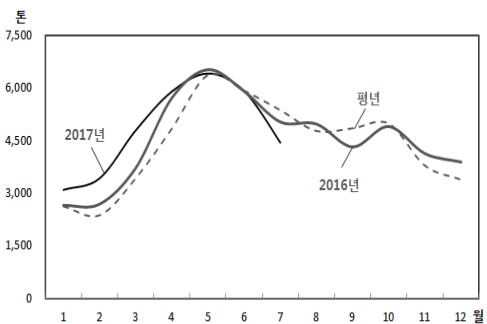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강원 일부지역과 충청의 폭우 피해와 적은 일조량으로 전년 동월보다 69% 높은 상품 100개에 5만 4,000원이었음.
 - 8~9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폭우 피해로 주산지인 강원, 충청 농가들의 출하가 조기에 종료되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주 출하지인 충청의 폭우 피해로 전년 동월보다 20% 높은 2만 8,100원이었음.
 - 8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적고, 9월은 8월 정식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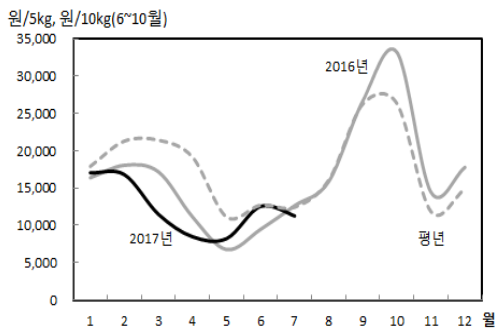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4월 1만 300원, 5월 8,700원, 6월에는 1만 1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8% 낮은 9,7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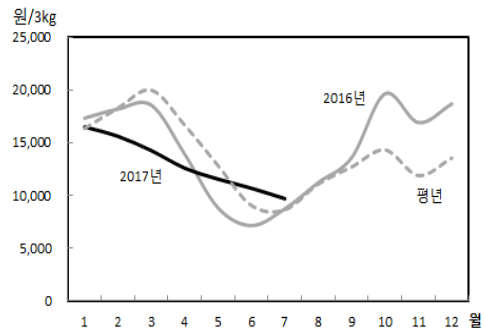
- 2/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음. 이는 영남의 면적 확대와 기상 여건은 좋았으나, 애호박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약세로 5월 애호박 농가들의 출하가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주산지인 충청의 폭우 피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전년 동월보다 55% 높은 상품 20개에 1만 8,100원이었음.
 - 8~9월 애호박 출하량은 충청의 폭우피해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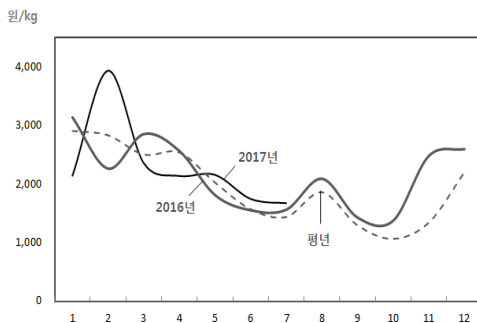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4~5월 일반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기상이 좋아 출하량이 증가하여 상품 5kg 상자에 8,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 하락하였으나, 6월에는 야간 기온 하락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 10kg 상자에 1만 2,600원으로 전년보다 33%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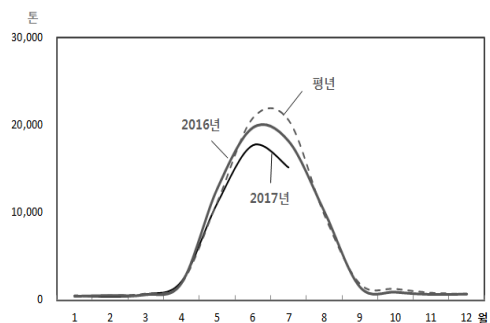
- 4~6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품질이 좋고, 과채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상품 3kg 상자에 1만 1,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높았음.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6월 야간기온 하락으로 출하가 지연되었던 물량이 나오면서 상품 10kg 상자에 1만 1,200원으로 전년보다 11% 낮았음.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와 과채류(수박, 참외) 가격 상승으로 상품 3kg 상자에 9,700원으로 전년보다 11% 높았음.
 - 8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7월 고온 다습한 기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3% 감소하나,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출하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 9월 일반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2%,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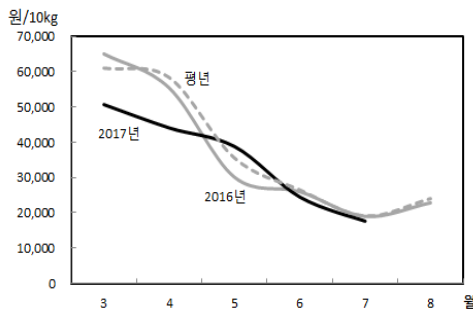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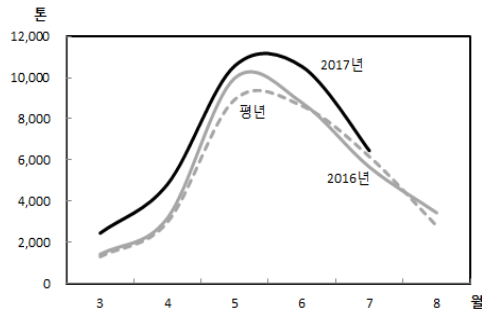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4월 2,140원, 5월 2,160원, 6월 1,72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 높은 2,010원이었음.
 - 수박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하였음. 이는 최근 3년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정식면적이 줄었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7% 높은 상품 1kg에 1,670원이었음. 반입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출하지인 호남에서 전년 출하기 낮은 가격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었고, 경북과 충청에서 우박 및 폭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8월 수박 출하량은 경북에서 우박피해로 출하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감소하겠으며, 9월은 우박 피해지역에서 재정식하여 출하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5.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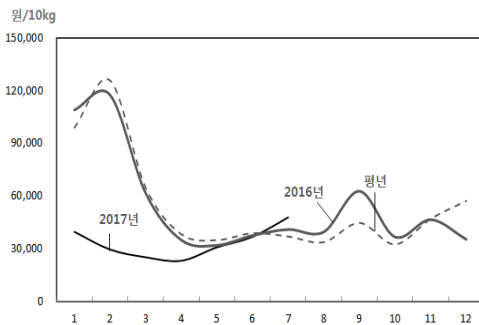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4~6월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기상이 좋아 작황이 양호하여 상품 10kg에 3만 5,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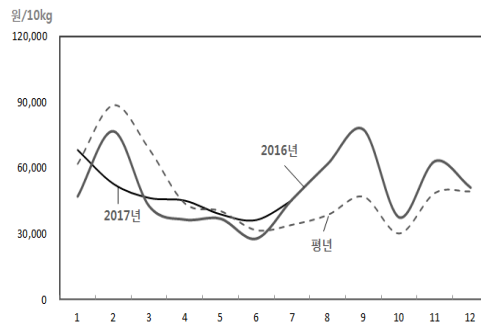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참외 도매가격은 기상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7% 낮은 상품 10kg에 1만 7,600원이었음.
 - 8월 참외 출하량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출하를 조기 종료한 농가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보다 18% 적을 것으로 전망됨.

5.6.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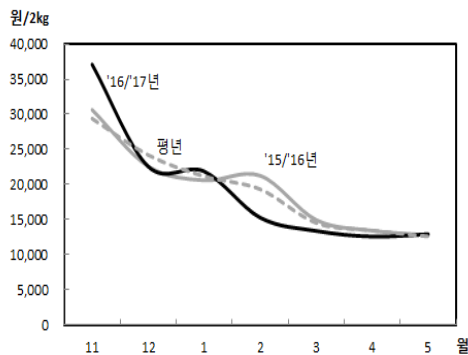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이 2만 2,100원, 5월은 3만 700원, 6월에는 3만 6,7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3% 낮은 3만 100원이었음.
 -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였음. 겨울철 청양계풋고추 가격이 낮아 4월 주산지를 중심으로 산지폐기(별채)를 시행하였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에는 4만 6,300원, 5월 3만 9,000원, 6월은 3만 6,4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9% 높은 4만 2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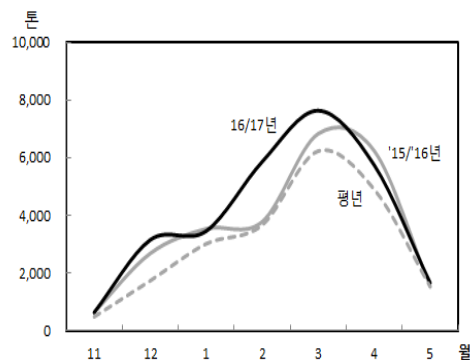
- 일반꽃고추(녹광) 4~6월 반입량은 주산지의 면적감소로 전년보다 23% 적었음.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7%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7,800원이었음. 7월 일반꽃고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5,400원이었음.
 - 청양계꽃고추 7월 반입량은 호남(봄작형)의 재배면적 감소와 강원외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적었으며, 일반꽃고추는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많았음.
 - 8~9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강원과 호남에서 출하면적이 줄어 감소하겠음. 이는 강원에서 병충해로 인한 단수 감소와 호남에서 일반꽃고추·홍고추 등으로 품종 전환되어 정식면적이 줄었기 때문임. 일반꽃고추(녹광)는 강원에서 정식면적이 늘었지만,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7.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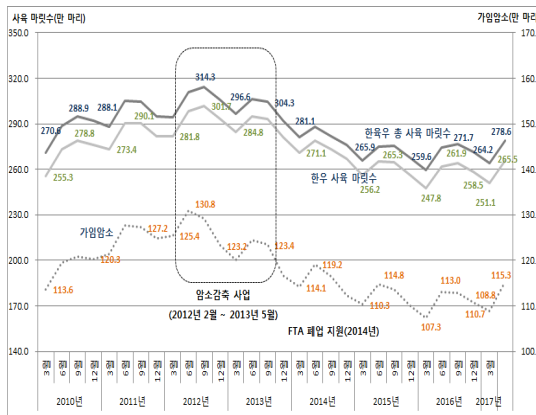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등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2/4분기 동향
 - 4~5월 딸기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기상이 좋아 작황이 양호하여 상품 2kg 상자에 1만 2,7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낮았음.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8월 딸기 정식의향면적은 전년보다 1%, 9~10월은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신규농가(귀농인)가 유입되고, 타 작목(블루베리, 엽채류 등)에서 전환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6. 축산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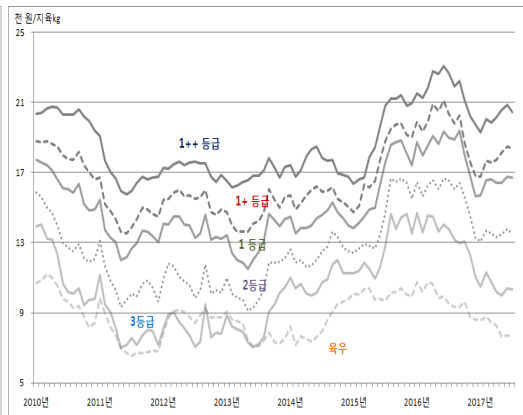
6.1. 한육우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7년 2/4분기 동향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 3월(264만 마리)보다 5.5% 증가한 279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74만 마리보다 1.6% 증가).

-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78만 6천 마리, 한우 265만 5천 마리, 육우 13만 1천 마리

-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15만 3천 마리(전년 동월 113만 마리)

- 수요 감소로 2017년 2/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분기 16,286원/지육 kg보다 1.4% 하락한 16,515원임(전년 동기 19,024원보다 13.2% 하락).

1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지인배 연구위원(j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진년(forever852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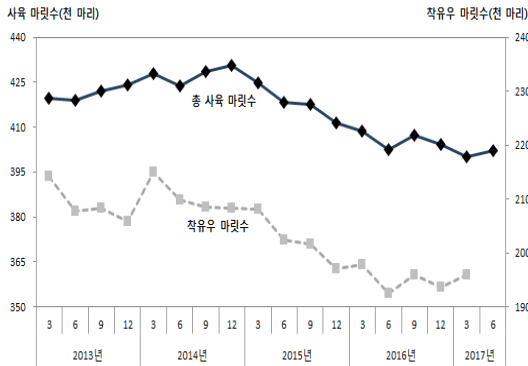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소비 위축으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18,973원보다 11.9% 하락한 16,713원이었음.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보다 0.9% 감소한 276만 마리로 전망됨 (전년 동월 277만 마리보다 0.3% 감소).
 - 추석 수요 증대로 8월 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강세인 17,500~19,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9,376원보다 5.8~9.7% 하락).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2017년 6월(A)	2017년 9월(B)	B/A
사육 마릿수	279만 마리	276만 마리	-0.9%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4~6월 16,515원	8~9월 17,500~19,000원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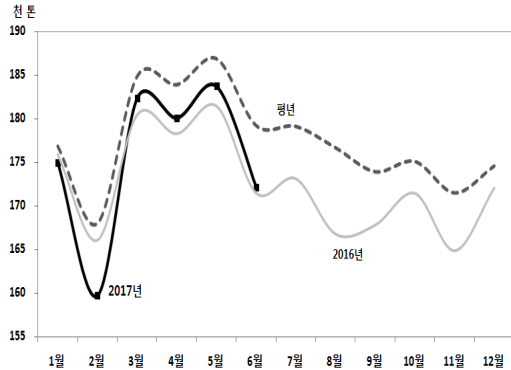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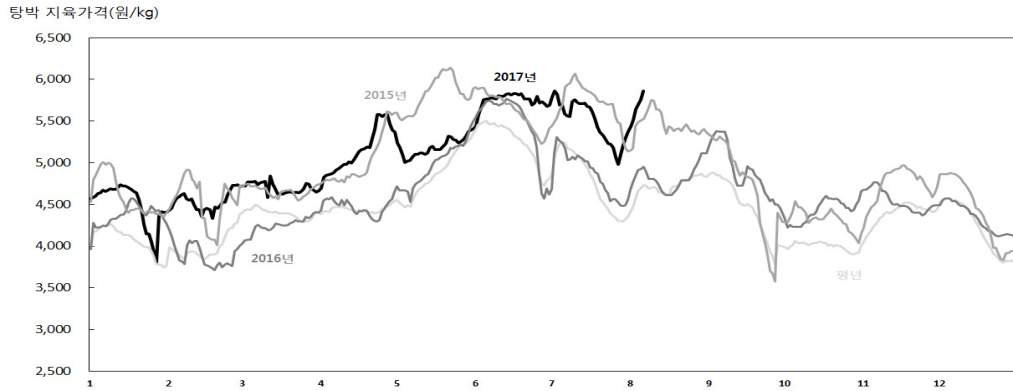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7년 2/4분기 동향
 - 6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전분기 대비 0.6% 증가) 40만 2천 마리였음. 2세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하였으나 2세 미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함.
 - 2세 이상 사육 마릿수의 증가에 따라 가임암소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전분기 대비 0.7% 증가)한 29만 마리임.
 -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53만 6천 톤임. 분유 재고량(2017년 6월 기준)은 전년 동기보다 29.1% 감소한 1만 1,322톤임.
- 2017년 3/4분기 전망
 - 3/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3~1.2% 증가한 50만 9천~51만 4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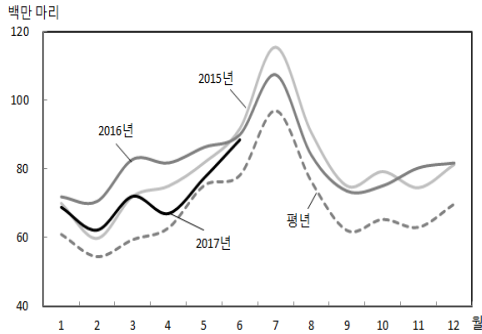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7년 2/4분기 동향
 - 2017년 6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2.4% 증가한 100만 5천 마리였음. 모든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0.7% 증가한 1,043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8% 증가한 415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경락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2/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4,948원)보다 8.5% 상승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5,369원이었음.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모돈수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383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경락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2017년 3/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5,528원, 8월 5,300~5,600원, 9월 4,900~5,2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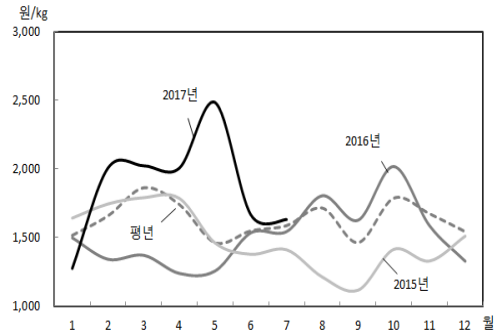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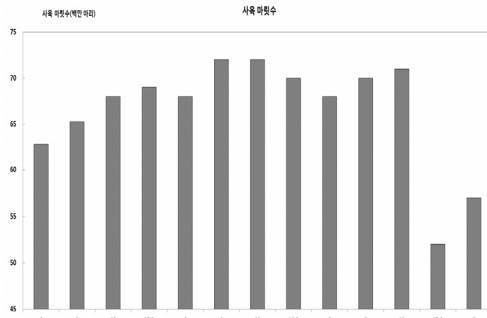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7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영향으로 전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병아리 생산 감소와 노계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2/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9.8% 감소한 2억 3백만 마리임.
 - 도계 마릿수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2/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 전년 동기간 대비 52.7% 상승한 2,052원/kg임.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 증가로 8월 이후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8월부터 병아리 생산이 증가하여 3/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억 7천 1백만 마리로 예상됨.
 - 8~9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격은 전망치보다 더 하락할 수 있음.
(7월: 1,632원/kg, 8월: 1,400~1,600원/kg, 9월: 1,200~1,4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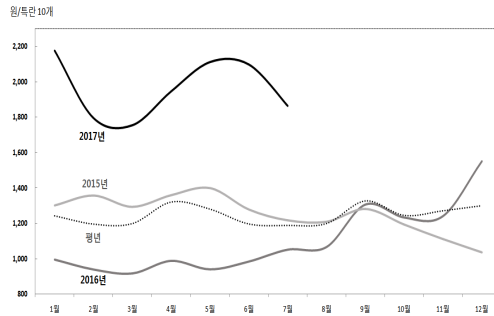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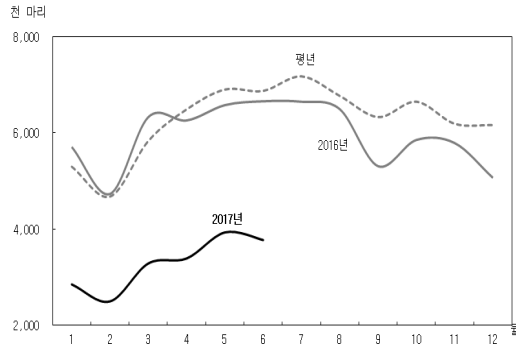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7년 2/4분기 동향
 -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16.0% 감소한 5,738만 마리였음.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4~6월)은 1,197만 마리로 전년 동기간보다 5.6% 증가 하였음.
 - 산란 성계 도태는 전년보다 88.4% 감소한 108만 마리였음.
 - 4~6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1.3% 상승한 2,051원(특란 10개)이었음.
 - 2017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AI발생으로 인한 살처분과 산란가담 신계군 감소로 7~9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7~8월 계란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계란 산지가격은 계란 살충제 검출로 인한 수요 감소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1,850원~1,950원, 8월: 1,700~1,800원, 9월: 1,300~1,500원/특란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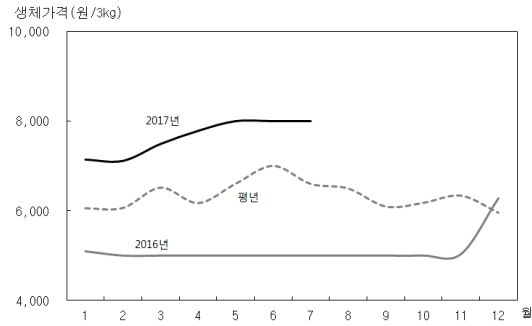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입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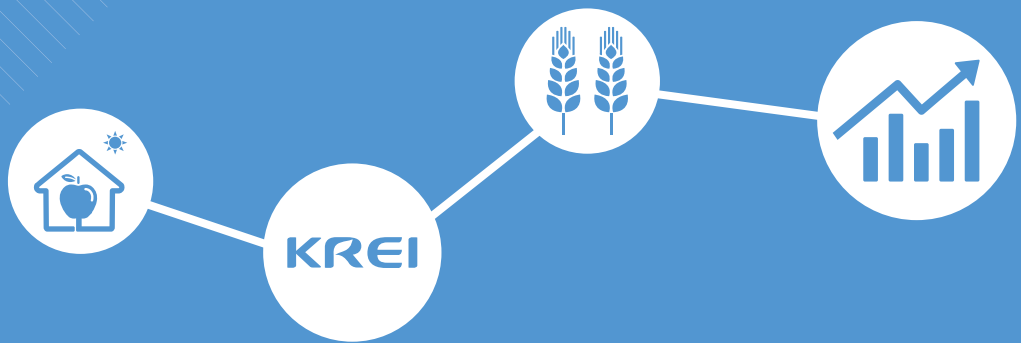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7년 2/4분기 동향
 - HPAI 발생으로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9.7% 감소한 646만 마리임. 종오리는 전년보다 21.5% 감소한 59만 마리이며 육용오리는 전년보다 41.0% 감소한 587만 마리임.
 - HPAI 발생으로 육용오리 입식이 감소하여 2/4분기 도입 마릿수는 전년보다 43.1% 감소한 1,110만 마리임.
 - 도입 마릿수 감소로 2/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58.6% 상승(평년 대비 20.3% 상승)한 7,928원임.
- 2017년 3/4분기 전망
 - HPAI 발생으로 도입 마릿수가 감소하여 6~8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38.9% 감소한 1만 8,324톤으로 전망됨.
 - 7~8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한 8,200~8,7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① 음식점 및 대량수요처의 농축산물 소비동향조사
- ②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 ③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음식점 및 대량수요처의 농축산물 소비동향조사*

노수정**, 최선우***, 임효빈****

1.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조사

1.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과 대량수요처(김치업체, 급식업체 등)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음식점과 대량수요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 응답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의 패널을 구성하였음.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일식 10.9% 순으로 많음. 규모별 응답자는 100㎡ 이하인 업소가 71.8%로 가장 많고 101~300㎡ 이하 20.0%, 300㎡ 초과 8.2%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인 것으로 나타남.
 - 직원수는 3명 이하가 75.5%로 가장 많음.

* 본고는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와 「채소류 대량수요처 조사」를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nosu303@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opendoyo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hyobin@krei.re.kr)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사업유형	프렌차이즈 가맹점, 직영점	26	7.9
	단독개인점포	304	92.1
면적	1~100㎡ 이하	237	71.8
	101~300㎡ 이하	66	20.0
	300㎡ 초과	27	8.2
직원수	1~3명 이하	249	75.5
	4~5명 이하	46	13.9
	6명 이상	35	10.6

1.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실태(조사결과)

- 2017년 2/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70(5점 척도)으로 전년 동기(2.71)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분기에 비해서 다소 상승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6년 2/4분기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음식업 경기동향	2.71	2.54	2.70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농산물을 식자재로 구입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 업체의 32.1%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24.8%의 업체는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제기함.

농산물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한 인식

단위: %

	비율
가격 등락이 심함	32.1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4.8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18.5
적절한 가격 정보를 얻기 곤란함	12.4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1.5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1.2.1. 채소류

- 2017년 2/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반면, 양념채소류는 전년 동기에 비해 0.5% 증가함.
 - 무를 제외한 엽근채소 주요 품목의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4% 감소
 - 고춧가루와 대파의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2.5% 감소하였으나, 마늘과 양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채소류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4.0	건고추	6.1
배추김치	-0.6	고춧가루	-1.3
무	0.1	마늘	3.8
당근	-1.5	양파	2.1
양배추	-1.3	대파	-2.5
소계	-2.4	소계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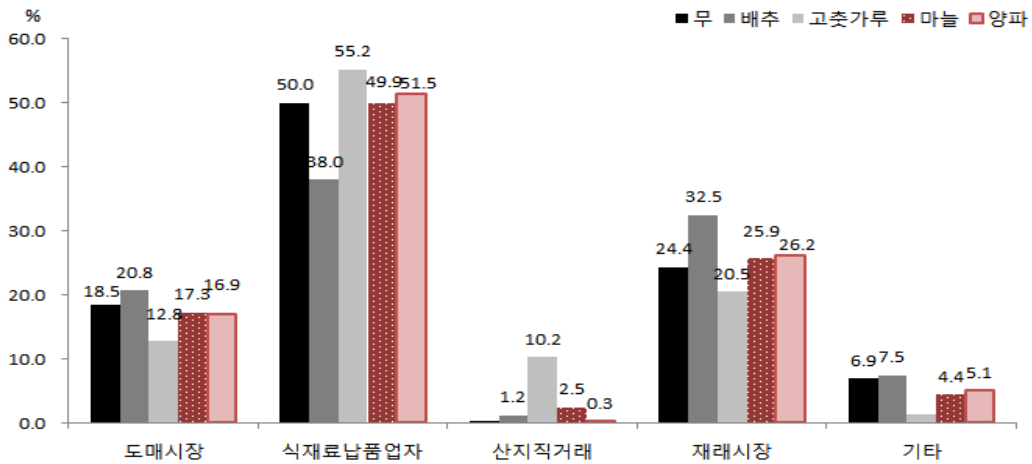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엽근채소 소계는 품목별 가중치가 없는 배추김치를, 양념채소는 건고추를 제외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채소류 대부분 품목은 식재료 납품업자 또는 납품 업체를 통한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재래시장과 도매시장에서의 구매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고춧가루는 타품목과 달리 산지 직거래 비중(10.2%)이 높은 편
 - 규모별(면적기준)로는 100㎡ 이하인 업체의 경우 재래시장에서의 구매 비중이 약 43%로 가장 높은 반면, 101㎡ 이상인 업체는 식재료 납품업체(49%)와 도매시장(36%)에서의 구매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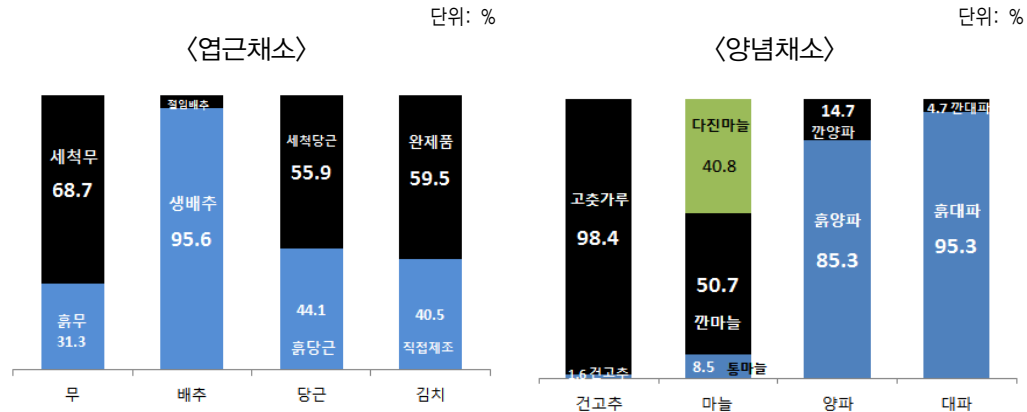
채소류 품목별 구입처



주: 기타는 대형마트와 인근 슈퍼 및 소매점 등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는 세척하거나 분쇄과정을 거친 1차 가공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추, 양파, 대파는 원물 형태의 구입비중이 각각 95.6%, 85.3%, 95.3%로 높게 나타남.
 -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음식점업체는 전체 중 40.5%로, 2015년 2/4분기 51.8%, 2016년 2/4분기 42.4%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채소류 품목별 구입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집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수입비중이 높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2017년 2/4분기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당근 순으로 중국산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추는 김치(완제품)형태로의 수입이 많으며, 신선도 유지의 어려움 등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선형태로의 수입이 적음.
 - 배추김치는 중국산 구입 비중이 전체의 80.6%로 가장 높음.
 - 무, 건고추, 대파, 양배추의 국내산 비중은 90% 이상으로 다른 채소류 품목에 비해 높음.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국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무	97.7	2.3	97.9	2.1
배추	99.4	0.6	98.1	1.9
배추김치	20.6	79.4	19.4	80.6
건고추	90.0	10.0	90.6	9.4
고춧가루	59.0	41.0	61.5	38.5
마늘	58.3	41.7	62.1	37.9
양파	79.9	20.1	81.4	18.6
대파	99.2	0.8	99.2	0.8
당근	60.5	39.5	64.7	35.3
양배추	97.4	2.6	96.4	3.6

주: 원산지 구입 비중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1.2.2. 과채류

- 2017년 2/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함.
 - 오이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한 반면, 풋고추와 애호박은 2/4분기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과채류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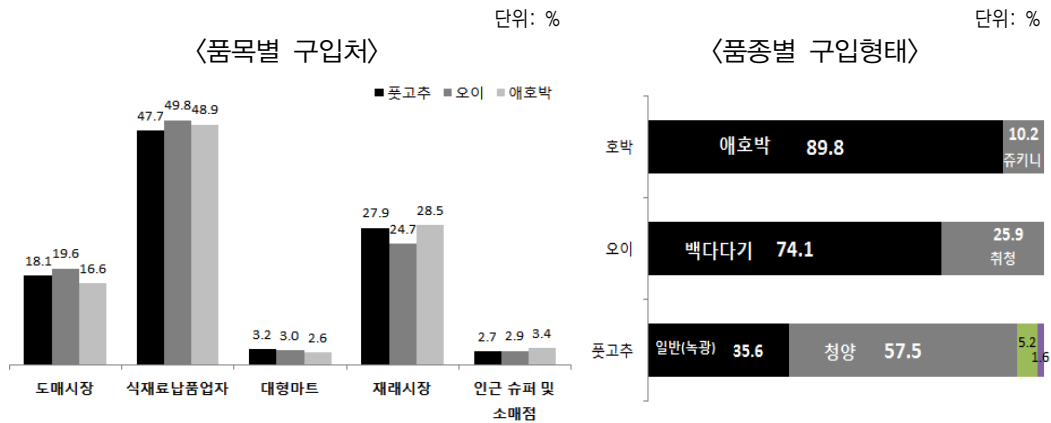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증감률	4.9	-1.6	3.7	2.4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과채류는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식재료 납품업자(납품업체)를 통한 구매비중이 전체의 약 50%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재래시장, 도매시장 순으로 나타남.
- 음식업체에서 구입하는 풋고추 주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57.5%)가 가장 많았고, 일반(녹광) 풋고추 35.6%, 파리고추와 오이맛고추가 각각 5.2%, 1.6%로 조사되었음. 오이는 백다다기오이(74.1%), 호박은 애호박(89.8%)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구입처 및 품종별 구입비중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1.2.3. 축산물

- 2017년 2/4분기 주요 축산물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소비 위축으로 한우를 중심으로 축산물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지(HPAI)의 재발로 인한 수요 감소와 물량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2/4분기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보다 각각 7.6%, 6.4% 감소

축산물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증감률	-1.1	-0.6	-7.6	-6.4	6.2	-0.6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계란의 경우 개수로 조사하여 개당 50g으로 환산한 수치임.
 3) 소계는 오리고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축산물 대부분 축종은 식재료 납품업자(납품업체)를 통한 구매가 가장 많으며, 오리고기의 경우 일반정육점(42.9%)과 오리전문소매점(21.4%)에서의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17년 2/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산물의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으로 조사됨.
 - 국내산 구입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5~2.8%p 감소
 - 쇠고기는 호주산 구입 비중이 69.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미국산(15.9%), 국내산(14.8%) 순임.
 -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구입(70.6%)이 가장 많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구입이 증가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7.6		66.7	15.7	14.8		69.2	15.9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71.1	11.3	5.6	9.6	2.0	70.6	11.0	6.3	9.0	2.5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89.7		6.6	2.6		88.8		6.6	3.6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중국산		국내산		프랑스산	중국산	
	90.7		2.7	6.7		89.2		3.1	7.7	

주: 원산지 구입 비중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30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 대량수요처 조사

2.1. 조사개요

- 조사 대상 응답 업체는 업소 유형별로 김치업체와 급식업체로 구분하고 각각 30개씩 총 60개 업체로 구성하였음. 규모별 응답자는 100인 이상과 50~99인 업체가 각각 21.7%이며, 49인 이하가 34개로 나타남.
 - 직위는 대부분 차장과 과장급이 전체의 43.3%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리 및 사원급도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실장과 주임 등은 5%로 비중이 낮게 나타남.
 - 100인 이상 업체의 경우는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 중 6개를 포함시켜 자료의 대표성을 높였음.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60	100.0
사업유형	김치업체	30	50.0
	급식업체	30	50.0
직위	대표, 임원급	7	11.7
	차장, 과장급	26	43.3
	대리, 사원	24	40.0
	실장, 주임, 영양사	3	5.0
종업원수	100인 이상	13	21.7
	50~99인	13	21.7
	20~49인	16	26.7
	20인 미만	18	30.0

2.2. 수요처 및 품목별 농산물 구매실태

- 품목별 주요 구매처별 비율 조사결과, 업체별로 다르나 전체적으로 식재료납품 업체를 통한 구매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김치업체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구매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고추가 28.3%, 마늘 45.0%, 양파 33.0%, 배추 22.4%, 무 25.1%로 조사됨. 다만 배추는 영농조합법인 외에도 산지유통인, 개인 생산자 비중도 높게 나타남.
- 급식업체의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한 구매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가공처리된 형태의 구입이 가능하고 원하는 품질조건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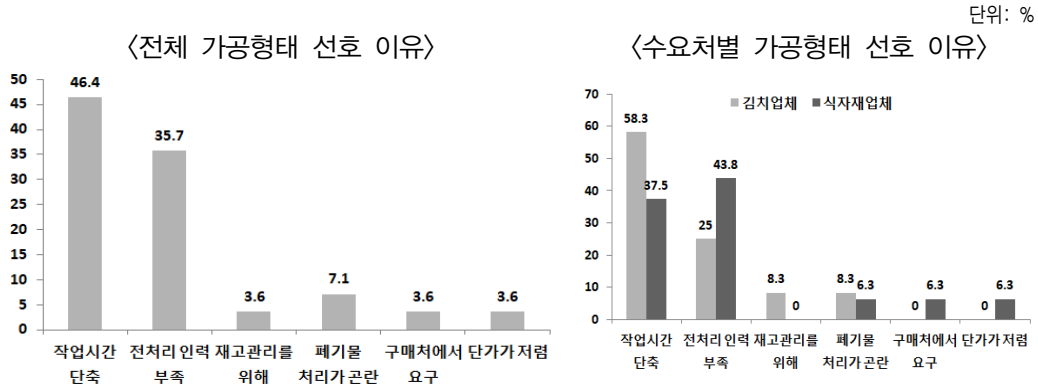
엽근 및 양념채소류 품목별 구매처 조사

단위: %

구 분	생산자 개인	지역농협	산지 유통인	영농조합 법인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재료 납품업체	
전체	고추	9.4	8.4	7.5	17.3	6.2	1.5	47.2
	마늘	4.5	9.5	11.4	25.6	14.7	3.7	30.7
	양파	4.7	10.1	6.0	19.3	24.6	7.3	26.2
	배추	13.7	8.7	16.9	16.1	11.3	7.8	24.8
	무	7.8	7.3	13.6	16.0	21.4	8.3	24.8
김치 업체	고추	8.4	15.8	8.7	28.3	7.2	0.0	26.7
	마늘	2.8	15.3	11.7	45.0	10.2	3.3	11.7
	양파	7.3	17.5	1.9	33.0	28.7	0.0	7.7
	배추	20.2	15.3	22.4	22.4	11.2	3.4	3.3
	무	15.6	12.5	17.8	25.1	20.3	3.3	3.7
급식 업체	고추	10.5	0.7	6.2	5.9	5.2	3.1	68.4
	마늘	6.2	3.4	11.0	5.5	19.3	4.1	50.3
	양파	2.4	3.4	9.7	6.9	21.0	13.8	42.8
	배추	4.8	0.0	9.5	7.7	11.4	13.6	53.2
	무	0.0	2.0	9.3	7.0	22.4	13.3	46.0

- 급식업체와 김치업체 중 50% 가량이 1차 가공된 채소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는 '작업시간이나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로 나타남. 급식업체는 '전처리 인력이 부족함'이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남.

수요처별 가공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대량수요처(60개 업체) 조사결과

2.2.1. 엽근채소류 구매동향

- 2017년 2/4분기 배추와 무 평균 구매량은 통배추를 제외하고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절임배추, 흙무, 세척무 2/4분기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10%, 12%, 3% 감소한 것으로 조사
 - 통배추는 가격 하락으로 2/4분기 구매량이 9% 증가하였으며, 주로 김치업체 구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
- 2/4분기 배추와 무 구매단가는 절임배추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통배추는 봄배추 생산량 증가로 구매 단가가 하락하였으나, 급식업체 절임배추 구매단가는 개학으로 수요가 늘면서 13% 상승
- 3/4분기 배추와 무 구매예상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며, 구매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통배추는와 절임배추는 추석 대비 구매량 증가로 전분기보다 각각 17%, 5% 증가하며, 통배추 구매단가는 고랭지 작형으로 전환* 되면서 60%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고랭지배추와 무는 생산비(운송비, 관리비, 수확상차비 등)가 여타 작형에 비해 높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
- 흙무는 구매량이 전분기와 비슷하나, 구매단가는 고랭지작형으로 전환되면서 62% 상승할 것으로 예상

배추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구분	통배추						절임배추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량			구매단가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1/4분기	208.4	339.4	27.5	1,086	760	1,543	178.0	296.6	0.1	1,417	1,264	1,646
2/4분기	226.5	368.5	27.6	921	646	1,305	160.2	266.5	0.9	1,597	1,037	2,438
3/4분기	264.3	421.1	33.1	1,477	844	1,566	168.2	266.5	1.1	1,916	864	4,267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3/4분기는 추정치임.

무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구분	흙무						세척무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량			구매단가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1/4분기	60.5	114.8	6.1	912	479	1,346	24.4	34.6	12.5	1,394	1,143	1,690
2/4분기	53.0	99.7	6.3	890	439	1,341	23.8	35.4	10.1	1,092	948	1,261
3/4분기	54.3	85.5	7.5	1,441	794	1,916	22.5	37.2	8.3	1,682	1,612	1,706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3/4분기는 추정치임.

2.2.2. 양념채소류 구매동향

- 2017년 2/4분기 국내산 고추와 고춧가루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중국산 구매량은 감소하였음.

- 2/4분기 국내산 건고추, 고춧가루 구매량은 정부비축물량 방출로 전분기 대비 각각 8%, 2% 증가하였고, 구매단가는 각각 16%, 3% 상승하였음.
- 2/4분기 중국산 건고추 구매량은 전분기와 비슷하나, 고춧가루는 국내산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1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중국산 구매단가는 건고추는 하락하였으나 고춧가루는 비슷
- 3/4분기 국내산 건고추와 고춧가루 구매량은 추석수요를 대비하여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은 국내산 수요가 늘면서 건고추 구매량이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
 - 3/4분기는 고추 수확기로 국내산 건고추 구매량이 증가하나, 중국산은 감소 예상
 - 특히 추석수요를 대비하여 미리 구매 할 것으로 예상
 - 3/4분기부터 햇고추가 출하되면서 건고추와 고춧가루 구매단가가 2/4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건고추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구분		건고추						고춧가루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량			구매단가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국내산	1/4분기	2.4	2.3	2.7	6,208	6,423	5,670	5.9	7.2	3.3	10,121	9,641	11,120
	2/4분기	2.6	2.0	4.1	7,200	6,967	7,783	6.0	7.3	3.2	10,449	10,068	11,242
	3/4분기	2.8	2.2	4.1	9,771	11,147	5,837	6.2	7.3	3.5	13,318	13,995	14,053
중국산	1/4분기	7.2	13.3	4.1	4,423	4,725	4,222	3.0	6.1	1.2	6,517	5,904	6,854
	2/4분기	7.2	12.6	4.5	5,367	5,471	5,298	2.6	5.2	1.2	6,901	6,095	7,354
	3/4분기	5.8	10.7	3.8	8,051	9,574	7,064	2.7	4.8	1.4	9,457	9,143	9,193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3/4분기는 추정치임.

- 2017년 2/4분기 국내산 마늘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중국산은 깬마늘 구매량이 감소하나, 다진마늘은 증가하였음.

- 5월부터 햇마늘이 출하되기 때문에 국내산 통마늘과 깐마늘은 대부분 김치업체에서 구매량이 증가했으며, 급식업체는 거의 비슷함. 구매단가는 대부분 전분기 대비 상승
- 중국산 구매량은 통마늘, 다진마늘은 큰 변동 없고 깐마늘은 국내산 햇마늘 출하로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음.
- 3/4분기 국내산 마늘은 김장철을 대비하여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도 김장철 대비 깐마늘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3/4분기는 마늘 수확기로 국내산 깐마늘, 다진마늘 구매량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산은 큰 변동 없으나 깐마늘 구매량 증가가 예상됨.
 - 특히 김장철 준비와 방학기간 종료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3/4분기부터 햇마늘이 출하되면서 국내산 및 중국산 구매단가가 2/4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마늘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구분		국내산						수입산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량			구매단가		
		전체	김치업체	급식업체	전체	김치업체	급식업체	전체	김치업체	급식업체	전체	김치업체	급식업체
통 마 늘	1/4분기	0.1	0.1	0.1	4,215	2,833	4,906	0.3	0.3	0.3	7,500	7500	7,500
	2/4분기	1.0	2.6	0.2	4,993	3,708	5,635	0.3	0.3	0.3	7,500	7500	7,500
	3/4분기	0.8	2.2	0.2	5,825	3,708	7,044	0.3	0.3	0.3	7,500	7500	7,500
깐 마 늘	1/4분기	4.1	5.5	1.2	6,681	6,468	7,135	1.3	3.0	0.3	1,989	2,333	1,783
	2/4분기	5.0	6.7	1.2	6,681	6,435	7,201	0.9	1.7	0.4	1,787	1,553	1,927
	3/4분기	5.5	7.2	1.4	9,465	9,882	9,001	1.2	2.3	0.5	2,457	2,588	2,312
다 진 마 늘	1/4분기	2.4	7.8	0.4	6,938	6,443	7,118	1.5	3.6	1.4	3,322	3,500	3,313
	2/4분기	2.4	7.9	0.4	7,110	6,438	7,354	1.6	3.6	1.5	3,575	3,500	3,579
	3/4분기	2.6	7.1	0.5	7,110	6,438	7,354	1.6	3.6	1.5	4,516	3,500	4,573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3/4분기는 추정치임.

- 2017년 2/4분기 국내산 양파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산은 깐양파 구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산 흠양파는 전분기 대비 구매량이 38% 증가하였으나, 깐양파는 6% 감소함. 중국산 깐양파 구매량은 국내 양파수급 불안정으로 크게 증가
 - 국내 양파수급 불안정으로 국내산 깐양파 구매단가는 소폭 상승하고, 중국산은 3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3/4분기 국내산 양파는 급식수요가 늘어 구매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은 깐양파 구매량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여름방학이 8월 중순에 끝나면서 양파 수요가 늘어나 급식업체 흠양파 구매량이 전분기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3/4분기부터 중만생종 저장 양파가 출하되면서 국내산 양파 구매단가가 2/4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양파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단가

단위: 톤, 원/kg

구분	흠양파						깐양파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량			구매단가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전체	김치 업체	급식 업체	
국내산	1/4분기	5.2	1.0	7.2	4,116	1,338	5,505	16.3	20.1	11.7	1,664	1,416	1,970
	2/4분기	7.2	4.6	8.5	3,946	1,731	5,054	15.3	20.4	9.0	1,682	1,379	2,057
	3/4분기	7.9	4.6	9.7	6,013	2,473	7,942	16.1	22.3	9	2,612	2,430	2,662
중국산	1/4분기	1.1	1.1	0.0	520	-	520	0.4	1.0	0.1	611	500	667
	2/4분기	0.0	0.0	0.0	413	-	413	8.2	1.0	11.8	813	500	969
	3/4분기	-	-	-	-	-	-	9.1	1	13.8	1,355	500	1,615

주: 구매량 및 구매단가 3/4분기는 추정치임.

2.2.3. 양념채소류 수입산 구입비중

- 2017년 2/4분기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건고추, 통마늘이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건고추와 통마늘이 각각 74%, 53%로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진마늘, 깐양파, 고춧가루, 깐마늘, 흠양파 순이었음.
 - 김치업체는 흠양파와 깐마늘, 깐양파를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나 건고추, 통마늘, 고춧가루는 중국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급식업체는 흠양파, 깐마늘, 고춧가루는 국내산 비중이 높은 반면, 통마늘, 다진마늘, 깐양파는 중국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17년 2/4분기 양념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김치업체		급식업체	
	국산	중국산	국산	중국산	국산	중국산
건고추	25.8	74.2	13.1	86.9	47.1	52.9
고춧가루	69.1	30.9	59.9	40.1	72.7	27.3
통마늘	47.3	52.7	48.7	51.3	35.9	64.1
깐마늘	84.6	15.4	80.1	19.9	75.6	24.4
다진마늘	61.5	38.5	68.4	31.6	16.7	83.3
흠양파	99.4	0.6	92.8	7.2	100.0	0.0
깐양파	65.1	34.9	95.8	4.2	43.3	56.7

자료: 농업관측본부 대량수요처(60개 업체) 조사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2017년 2/4분기 음식점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엽근채소와 축산물은 2016년 2/4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양념채소와 과채는 증가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소비 위축, HPAI 재발과 물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물 대부분 축종 구매량 감소
 - 청양계핏고추와 애호박 가격이 전년보다 낮아 과채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대량수요처 2017년 2/4분기 엽근 및 양념채소 구매량은 대부분 증가하며, 중국산은 일부 품목 제외하고 증가
 - 2/4분기 국내산 채소류 구매량은 무, 깐양파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 국내산 무와 깐양파는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높아 구매량이 감소하였으나, 중국산 깐양파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3/4분기 국내산 및 중국산 채소류 구매량은 추석, 김장수요 증가 및 개학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증가 예상되나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정
 - 8월에 개학을 하면서 채소류 수요가 늘어나 급식업체 구매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배추, 무, 양파의 경우 작황피해가 발생하면서 수급이 불안정
 - 김치업체는 경우 배추와 마늘을 중심으로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마늘 소비가 늘어날 전망
 - 구매단가는 고령지작형 전환 및 국내 생산량 감소, 수요증가로 전분기 대비 대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음식점과 대량수요처 모두 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한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채소류의 품목별 중국산 구입 비중은 건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가 높게 나타났

으며, 음식점의 경우 건고추의 국내산 비중이 높은 반면, 대량수요처(특히, 급식업체)는 고춧가루 국내산 구매율이 높음.

- 3/4분기 대량수요처 채소류 구매량이 증가하나, 일부 채소는 수급 불안정으로 구매단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 필요
 - 수요가 많은 시기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해 양파의 경우 TRQ 도입과 저장 물량 출하 독려가 필요한 상황
 - 고랭지 배추의 경우 8월 하순까지는 출하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량수요처 업체는 구매시기 조절 및 철저한 소비계획 등이 필요
- 음식점 및 대량수요처 소비 동향은 규모별(면적, 종업원 수), 업소유형별 등 응답자의 특성과 구매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소비자 시장 동향과 산지 동향 변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특성과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구매량과 구매단가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음식점과 대량수요처의 소비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외식업체의 소비시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노수정**

- OECD-FAO 농업전망은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매년 주요 농식품(agricultural commodities, 수산포함)의 향후 10년간 소비, 생산, 무역, 가격을 전망하고 있으며, 매년 특별 내용으로 특정 지역(금년 동남아시아)을 선정하여 분석함.

1. 세계 농업 전망(2017~2026)

- 지난 10년간 곡물 등 농산품의 충분한 재고 확보로 향후 국제가격은 폭등 이전인 2007~2008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1.1.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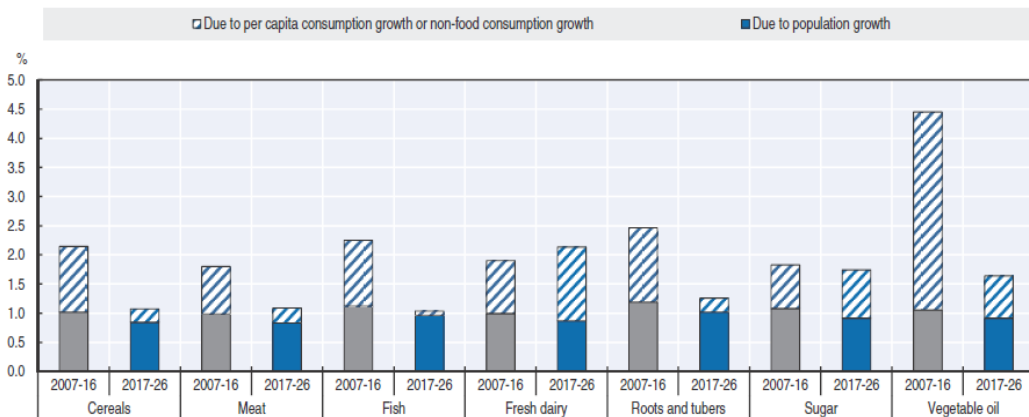
- 향후 10년간(2017~2026) 전체 식품 소비 증가율은 과거 10년과 비교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과거 10년간 소비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정체와 저유가로 바이오연료의 생산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주요 식품 소비증가 정체
 - 인도 등 개도국의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신선 낙농품(우유 중심) 이외 주요 품목의 소비증가율은 지난 10년보다 감소 전망

* 본고는 2017년 7월 10일에 발간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nosu303@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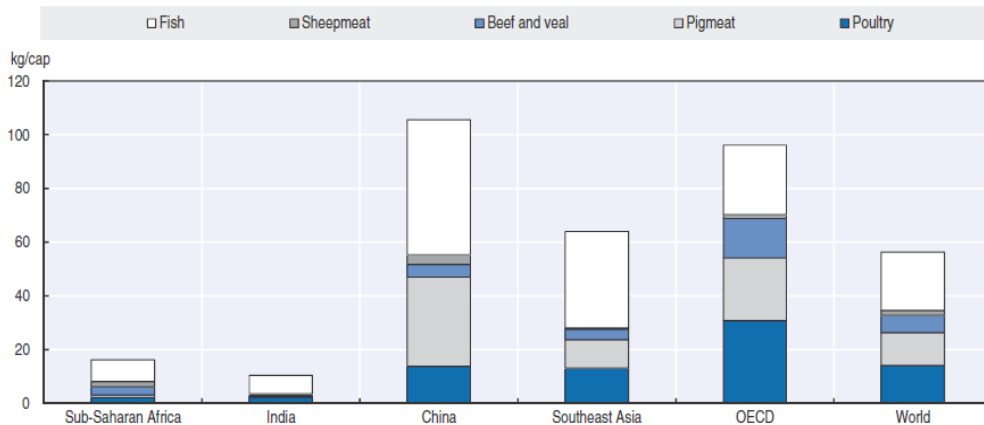
- 1인당 소비 또는 비식용 농산품 사용 증가로 소비가 증가되었던 과거 10년과 비교해 향후 10년간 1인당 주요 식품 소비 증가는 주로 인구증가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식물성오일, 설탕, 낙농품 등 일부 품목이 소비 증가 주도

주요 농산품 소비증가를 비교(2007-2016/2017-2026)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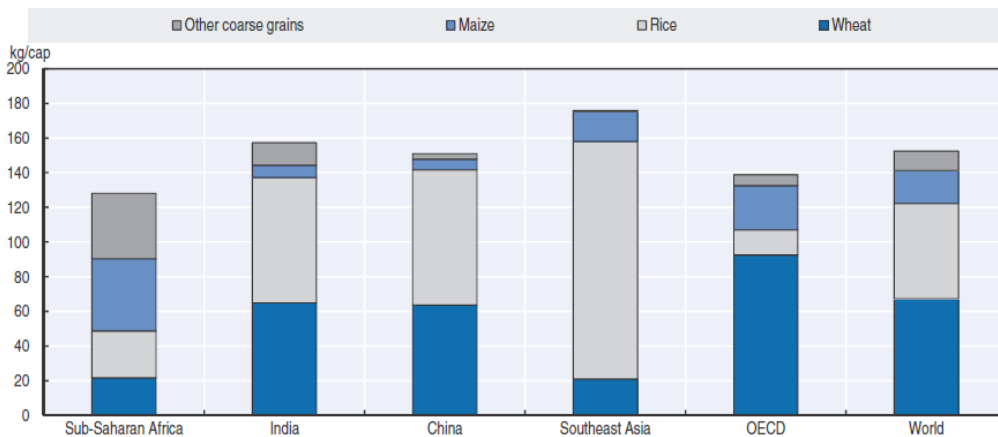
2026년 지역별 1인당 육류 및 수산물 소비 전망



주: Southeast Asia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포함되어 있음.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 앞으로는 국가간 1인당 식품소비패턴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육류(meat) 및 수산물(Fish)은 식습관과 저소득, 공급제약 등으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곡물 소비는 육류와 달리 국가별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곡물이 여전히 식습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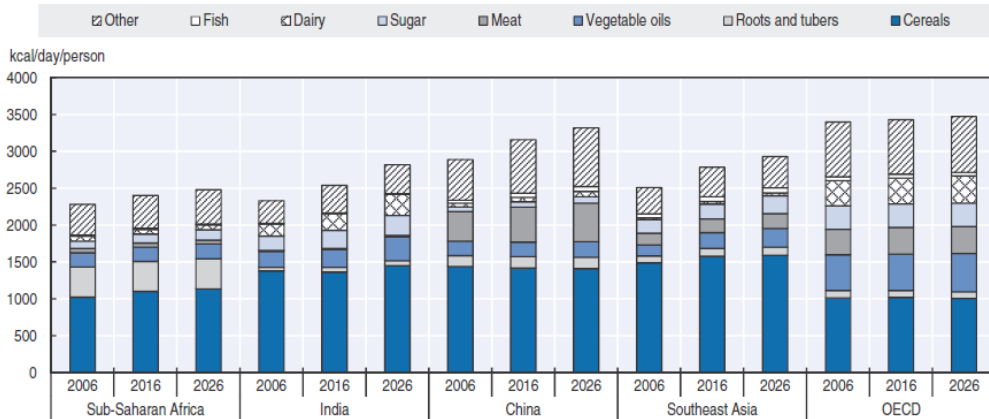
2026년 지역별 1인당 곡물 소비 전망



주: Southeast Asia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포함되어 있음.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 2026년 1인당 평균 열량 소비가 최빈국은 2,450kcal에 도달하고, 개도국은 3,000kcal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1인당 평균 열량 소비는 과거 10년 동안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은 감소함.
 - 최근에는 중국의 열량 소비가 OECD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2026년까지 OECD 회원국의 평균 열량 소비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식품 카테고리별 1인당 평균 열량 소비



주: Southeast Asia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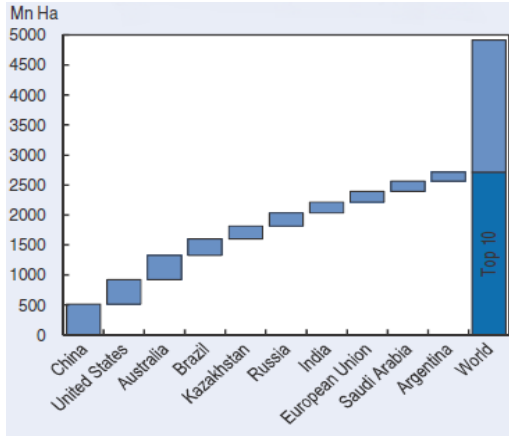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1.2.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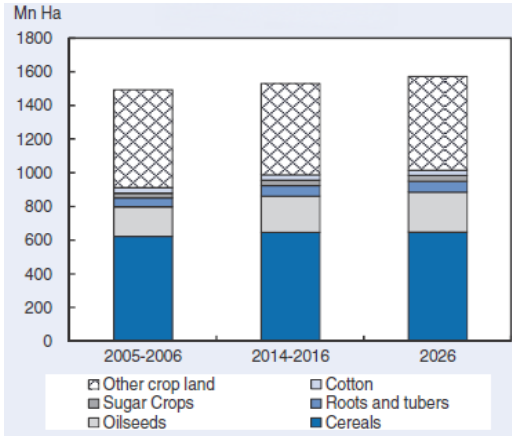
- 향후 10년간 곡물 생산은 단위면적당 생산량(yield) 증가로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까지 밀 생산량은 11%, 옥수수 14%, 쌀 13% 증가 전망
 - 특히 옥수수 생산량 증가의 90%, 쌀 생산량의 93%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달성됨.
- 곡물과 달리 대두, 아자오일 등 유지작물은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생산면적 확대가 제한적임.

세계 농지 면적 동향

〈 국가별 농지 면적(2007-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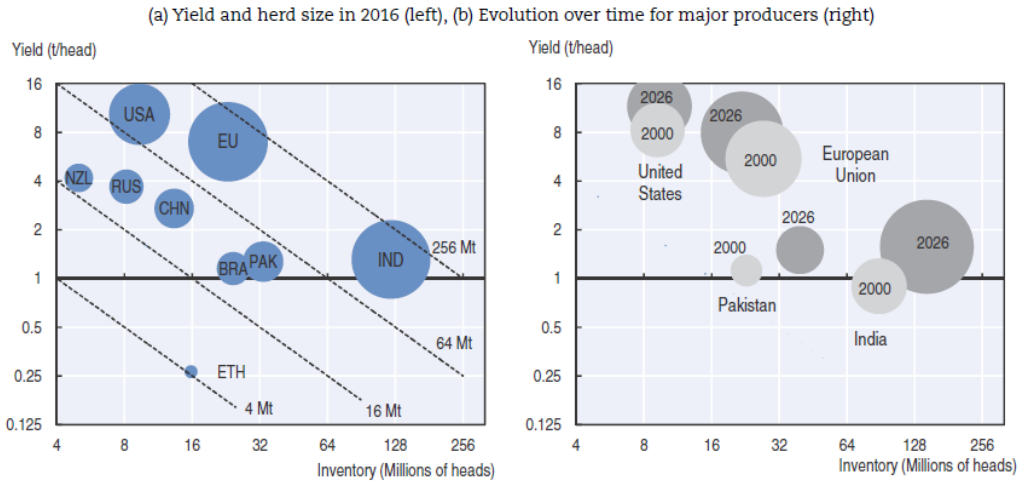
〈 농작물별 경작면적 변화 〉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 낙농품의 경우 사육두수 증가가 생산량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국가별로 집약적 또는 조방적 생산방식의 다양성이 유지됨.
 - 2026년까지 낙농용 가축 11% 증가 전망(총 79백만 마리 증가)
 - 양대 우유생산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2016년 122백만 마리가 1.3톤/마리의 우유를 생산한 반면, EU는 23백만 마리가 평균 7톤/마리를 생산하였음.
 - 낙농품 주요 생산국(EU, 인도, 파키스탄, 미국)의 2026년 생산량은 2000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EU는 다소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에 반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생산량 뿐만 아니라 낙농용 가축 사육두수도 급격히 상승할 전망
 - 인도의 경우 21세기(2001~2100년) 1/4분기 기간 동안 우유 생산이 3배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최대 우유 생산국가가 될 전망

주요 국가의 우유 생산 전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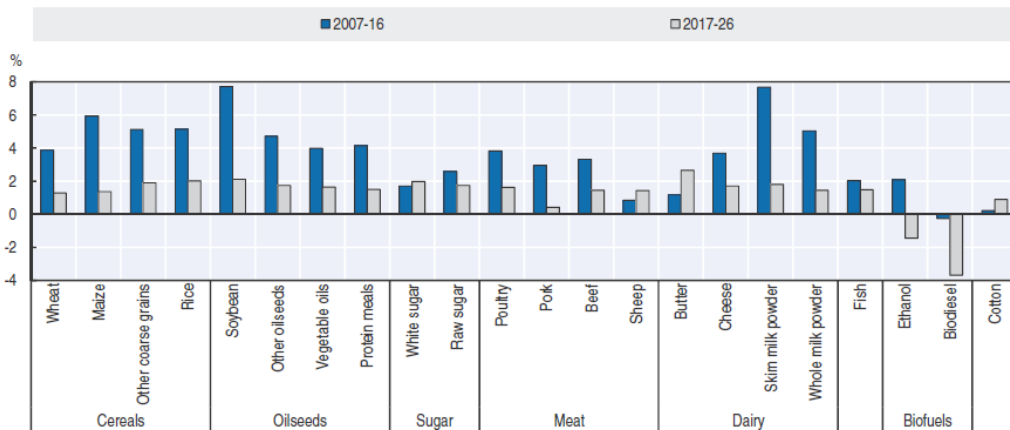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 유가공식품의 경우 주로 선진국에서 생산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4%(치즈) ~2.3%(탈지분유) 정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최대 버터 생산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소비시장 확대로 주요 수출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14~2016년 평균 육류 생산량 대비 2026년 생산 증가량은 약 40백만 톤이며, 가금류(15백만 톤, 13% 증가), 돼지(12백만 톤, 10% 증가), 소고기, 양고기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EU, 미국,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에서 육류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78%를 4개국만 점유하고 있음(중국 47% 차지).
-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어획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수산양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산물 생산 증가를 주도함. 특히 중국은 저렴한 사료가격을 기반으로 양식 수산물 생산 확대에 기여함.
 - 중국은 2026년 전체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1.3. 무역

- 향후 10년간 농산물 무역 증가율은 지난 10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무역 가치의 45%를 차지하는 곡물과 유지작물(oilseeds)의 증가세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 탈지분유, 바이오 연료의 무역 증가세도 둔화 예상
 - 반면, 설탕, 양고기, 버터와 면화는 다소 증가 전망

품목별 무역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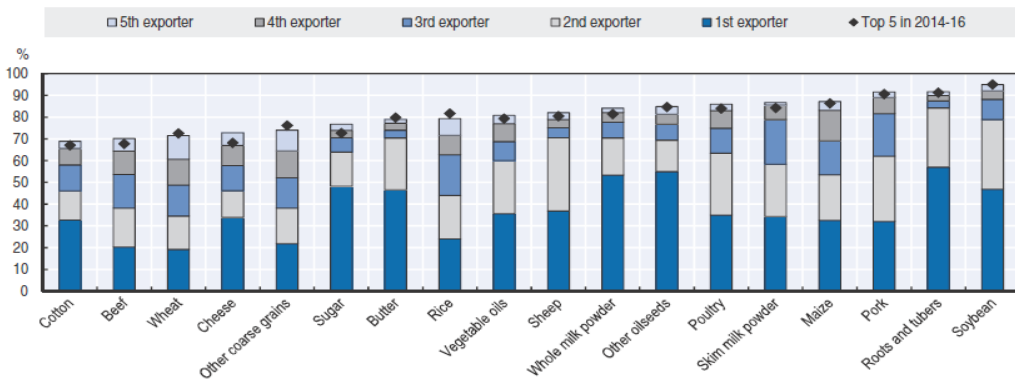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 무역 감소는 농산물에서만 나타나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무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수요 증가 둔화, 무역개혁의 지연, 중국 무역의 성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농업 무역개혁은 UR 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급률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이후 농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대두를 중심으로 수입이 정체되고 있음.
- 농산물 무역은 일반 상품무역에 비해 증가율 감소폭이 적으며, 이는 인구증가와 농산물의 낮은 수요탄력성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무역증가율('01~'07→'11~'15): 상품무역(6.6%→2.3%), 농산물무역(4.9%→3.1%)
- 농산물 순수출은 미국, 동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순수입은 다른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품목별 수출 상위 5개국은 대부분 품목의 총 수출물량 중 70% 또는 그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출 집중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낙농품 수출 집중도 전망(EU 강세): 치즈(68%→73%), 전지분유(81→84), 탈지분유(84→87)
 - 육류 수출 집중도 전망: 가금류(84%→86%), 소고기(68→70)
 -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몇몇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 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야기되는 공급충격에 대한 세계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줌.

수출 상위 5개국의 품목별 점유 비율(2026년)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 2026년 수입 상위 5개국의 품목별 점유 비율은 대두, 유지작물 등을 제외하고는 수출에 비해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농산물 수입의존도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곡물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알제리와 이집트도 수입의존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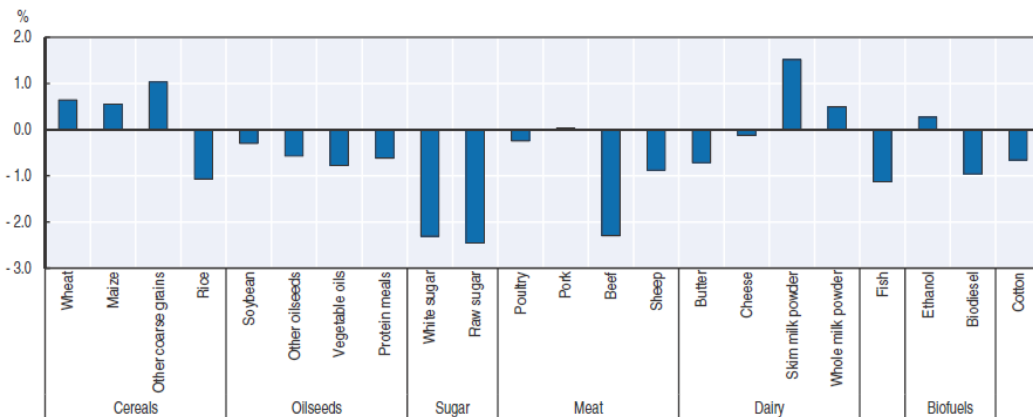
- 향후 농산물 무역은 생산량 변동, 자국내 정책 및 수요변화(특히, 중국),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폐지, 환경규제와 동물복지법 강화 등 다양한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1.4. 가격

- 전체적으로 농산물 소비증가는 정체되는 반면에 충분한 재고 확보 등으로 대부분 품목의 향후 10년 실질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곡물)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 증가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의 실질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쌀은 연평균 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유지작물) 대두를 비롯한 유지작물 실질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신흥국가의 경제가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가격은 과거 10년('06~'16) 대비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설탕) 설탕 실질가격은 연평균 약 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백설탕(흑설탕)가격은 1톤당 약 700\$(610\$)에서 2014년 350\$(280\$)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최근 2년간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였음. 최근 상승한 설탕가격 조정으로 향후 설탕 실질가격은 하락세 전망
- (육류) 주요 생산국가의 사육두수 및 중량 증가로 공급이 확대된 반면, 중국 및 개발도상국의 수요 감소로 육류 실질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낙농품) 버터가격은 다소 하락하나, 분유(전지, 탈지)는 소비회복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수산물) 수산물 가격은 연평균 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양식 수산물의 실질가격이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연료) 바이오에탄올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오디젤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연료는 바이오연료 정책과 석유가격, 바이오매스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면화) 2011년 가격 피크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면화 연평균 소비의 약 75% 수준) 면화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17~2026년 품목별 연평균 실질가격 변화율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2. 동남아시아¹⁾ 농어업 분야 현황과 향후 전망

2.1. 농업관련 주요 현황 및 특징

- 동남아시아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2000~2016년 기간 동안 실질 GDP는 연평균 약 5%, 인구는 1.3%씩 증가하였음.
 - 2014~2016년 기준, 전체 인구는 약 630백만 명(전 세계 인구의 9%)이며,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90년대 초반 31%에서 2014~2016년 10% 미만으로 감소
- 농림어업이 총 GDP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며,

1)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예외적으로 태국의 2014년 농림어업 GDP의 비율(총 GDP 대비)은 1996년 대비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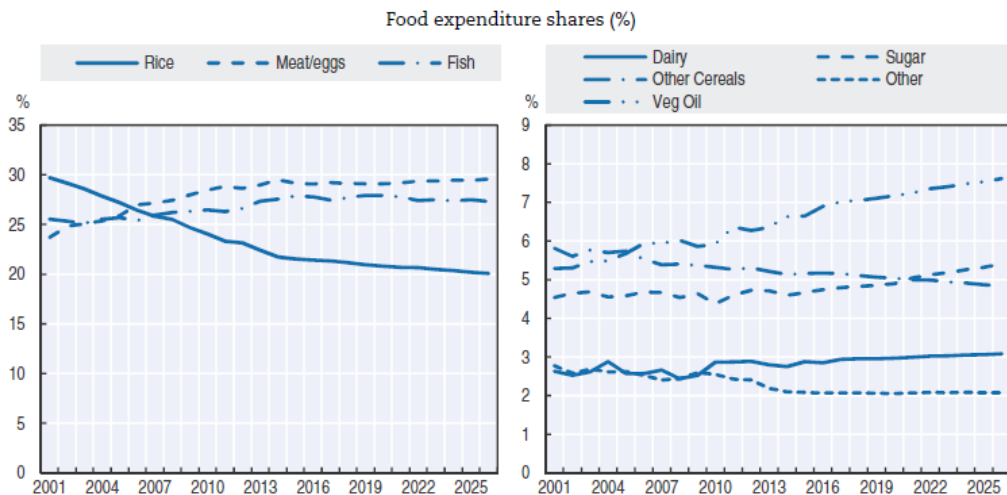
-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가 가장 많으며, 베트남과 미얀마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농가의 농지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농산물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쌀의 경우 높은 생산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3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부가가치가 높은 야자오일의 생산 증가가 쌀 생산비중 감소를 대체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생산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음.
- 수산물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42%)으로, 1인당 연간 36kg을 소비하고 있음(전 세계 1인당 평균 소비량의 2배).
 - 동남아시아는 수산물 전체 생산의 17%(2015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내륙양식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음(2000~2015년간 460% 성장).
 -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고갈과 양식업의 집약화로 환경 및 식품안전 문제 등이 점차 대두되고 있음.
- 아세안²⁾은 농식품 순수출 지역('14년: USD 139억불 수출, 90억불 수입)이며, 야자오일, 쌀, 수산물 등이 주요 수출품임.
 - 동남아시아는 아세안 역내 무역이 중요하며, 2014년 기준 역내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24%를 차지함.

2) 아세안(ASEAN)의 정식 명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임.

2.2. 향후 전망

- (소비) 소득 및 인구 증가로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가 증가하지만, 식품소비의 다양화로 쌀 소비 비중은 감소가 예상된다.
 - 식품소비지출 중 쌀 소비 비중: (2011년)30% → (2016년)21% → (2026년)20%
 - 설탕과 식물성오일의 소비지출 비중은 매년 1% 정도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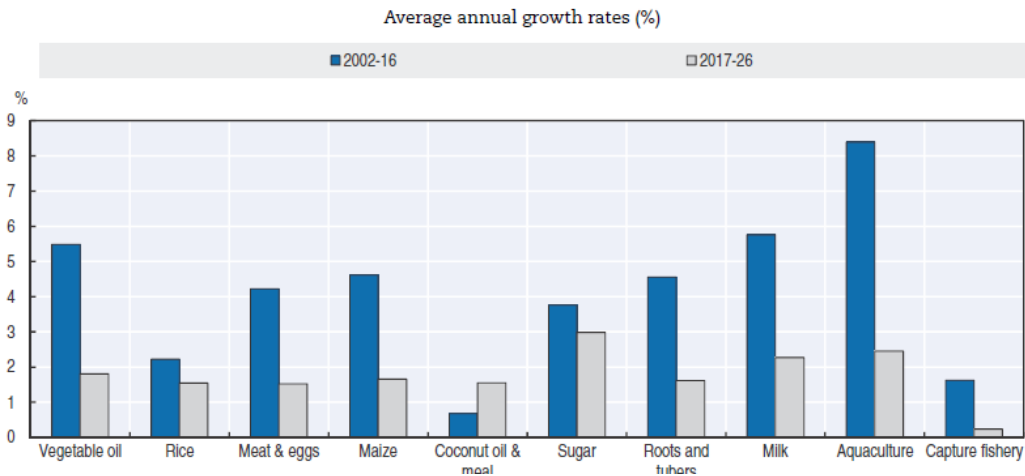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소비 변화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 (생산) 농수산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8%씩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10년 대비 주요 품목(식물성오일, 옥수수, 우유 등)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산자원고갈 등으로 수산물 생산증가율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10년간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농업생산은 증가가 예상되며, 재배면적은 사탕수수, 야자나무, 코코넛 등 특정 품목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특정품목의 재배면적 증가는 전체 작물 생산 증가에 10%만 영향 미칠 전망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품목별 생산증가율 변화



자료: OECD/FAO(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 Agriculture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agr-data-en>.

- (가격) 향후 10년간 동남아시아 주요 생산품목(쌀, 식물성오일 등)의 국제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국가별로 시장개방정도 등에 따라 가격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무역) 주요 품목의 생산 증가와 아세안 지역의 소득 증가 등으로 기존의 수출품과 수입품이 더 증가하는 무역패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식물성오일과 쌀 등의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밀, 옥수수 등의 수입 증가 전망
- 동남아시아는 천연자원 및 중간재 투입 확대에 기반한 농수산업의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앞으로는 성장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자원관리 개선 및 R&D 투자 확대 필요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¹⁾ 수입액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과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이행 3년차(2014년) 이후 감소 추세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62.9(발효 전 평년²⁾) → 71.1(이행 1년) → 64.2(이행 2년) → 83.3(이행 3년) → 74.4(이행 4년) → 71.8(이행 5년)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무역 전환효과 등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9%p 하락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25.1(발효 전 평년) → 22.4(이행 1년) → 19.9(이행 2년) → 24.8(이행 3년) → 23.4(이행 4년) → 23.2(이행 5년)

* 본고는 「농정포커스-제 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를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dongsimjst@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uhwan8352@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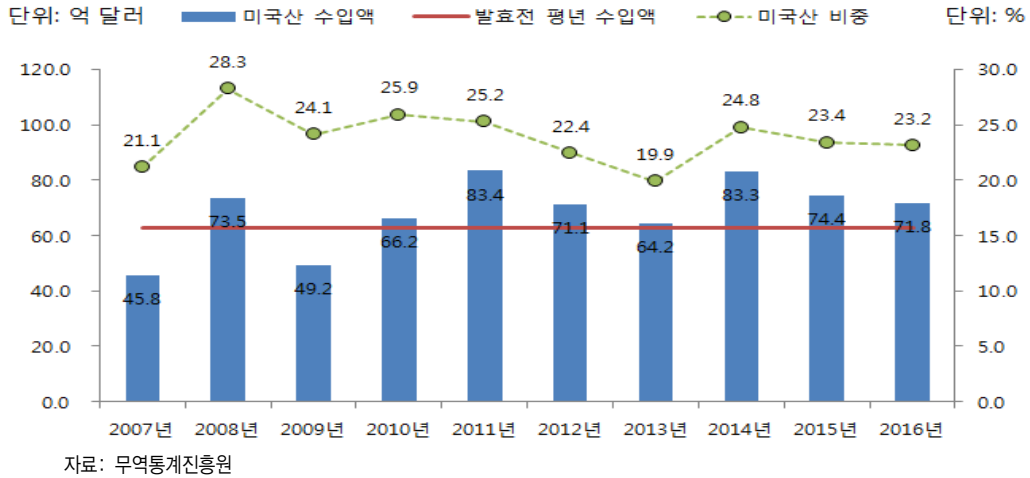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psy0788@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mkjeong@krei.re.kr)

1) 본고에서 후술하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을 의미함.

2) 한·미 FTA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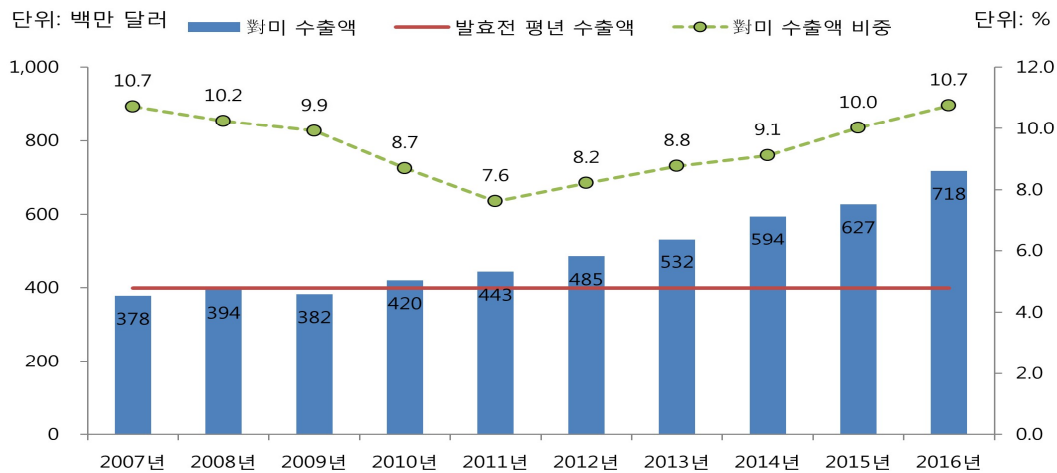


1.2. 對미 농축산물 수출 동향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0% 증가하였고, 발효 후 연평균 10.3% 증가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수출 여건 개선, 수출 시장 개척 및 홍보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EU, 대만,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이어 빠른 증가세를 보임.
 - ※ 우리나라 수출 상위국의 수출 증가율: EU(25.9%), 대만(25.4%), 아랍에미리트연합(24.0%), 미국(14.4%)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4.0(발효 전 평년) → 4.8(이행 1년) → 5.3(이행 2년) → 5.9(이행 3년) → 6.3(이행 4년) → 7.2(이행 5년)
-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에서 對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행 5년차에는 전년 대비 0.7%p 상승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 9.5(발효 전 평년) → 8.2(이행 1년) → 8.8(이행 2년) → 9.1(이행 3년) → 10.0(이행 4년) → 10.7(이행 5년)

- 對米 농축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행 5년차 가공식품 수출 비중은 75.6%로 전년 대비 14.2%의 증가율을 보임.

對米 농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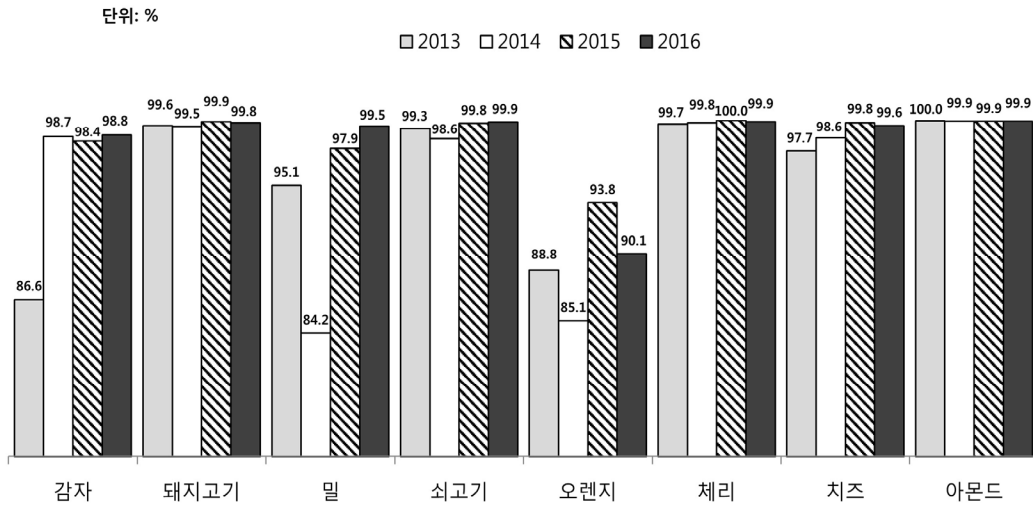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3. 한·미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대상 품목3)’의 수입액은 62.5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44.5억 달러임.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2.6(’13) → 63.3(’14) → 71.6(’15) → 71.3(’16)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품목 가운데 쇠고기 수입액(10.4억 달러) 비중이 가장 높으며(14.4%),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99.9%로 매우 높은 수준
 - 수입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감자(98.8%), 돼지고기(99.8%), 밀(99.5%), 쇠고기(99.9%), 오렌지(90.1%), 체리(99.9%), 치즈(99.6%), 아몬드(99.9%) 등임.

3) FTA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인하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임.

2016년 주요 농산물 한·미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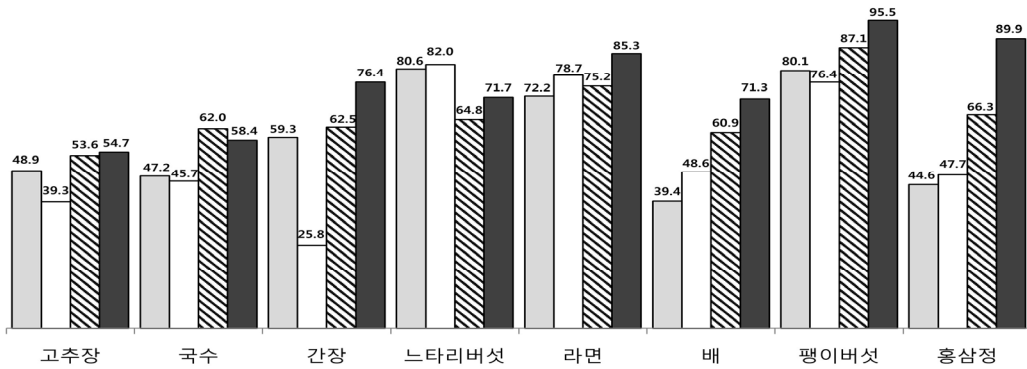


- 이행 5년차 대비 농축산물 수출액은 7.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3.5억 달러임.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46.7('13) → 46.2('14) → 47.8('15) → 48.7('16)
 - 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고추장(54.7%) 국수(58.4%), 간장(76.4%), 느타리버섯(71.7%), 라면(85.3%), 배(71.3%), 팥이버섯(95.5%), 홍삼정(89.9%) 등임.
 - 특히, 간장(13.9%p), 느타리버섯(6.9%p), 라면(10.1%p), 배(10.4%p), 팥이버섯(8.4%p), 홍삼정(23.6%p) 등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2016년 주요 농산물 한·미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2.1. 축산물

- 최근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분유의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를 보임.
 -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국내 도축두수 감소와 한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국내 도축두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6% 감소하여 FTA 이행 1년차와 비슷한 수준
 - 미국산 닭고기 수입액은 미국의 AI 발생에 따른 국내 반입금지 조치('16년)로 전년 대비 감소
 - 미국산 유제품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효과(EU산과 뉴질랜드산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 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쇠고기	수입액	301	522	578	764	802	1,035	58.5*	29.1
	수입량	62	106	101	112	115	169	31.3*	46.0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393	74.9	-13.6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149	51.8	-1.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8	-84.3	-45.7
	수입량	39	54	45	65	11	7	-82.0	-33.9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169	199.8	-32.7
	수입량	13	32	43	64	55	40	207.9	-27.1
분유 (탈지+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2.6	1315.7	-1.7
	수입량	0.3	1.9	6.3	8.0	5.7	6.1	2019.0	7.3
전체 축산물	수입액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82.9	-1.9
	수입량	461	558	518	561	520	546	18.5	5.1

* 쇠고기의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감률은 미국 광우병(BSE) 발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로 발효 전 평년값에 이상치(Outlier)가 발생함에 따라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수입액 6.53억 달러, 수입량 12.8만 톤) 기준으로 산출함.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수입액(량)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석에 사용한 HSK코드는 냉장 또는 냉동의 것으로 가공(염장, 건조, 훈제, 통조림화 등)은 제외함.

3) 전체 축산물은 신선·가공 축산물을 포함한 총 683개 세번의 합계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1.1. 쇠고기

-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과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46.0% 증가한 16만 9천 톤
 - 동 기간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자국 내 소 사육두수 감소와 쇠고기 생산량 감소(18.5%) 등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8% 증가하는 데 그침.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자국 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국내 수입단가 하락과 FTA 관세율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11.1% 하락
 - 미국산 쇠고기 생산량 증가(5.3%)로 국내 수입단가는 동 기간 11.4% 하락

- 향후 미국 내 소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7년 미국 쇠고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KREI 농업전망 2017)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 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7,704	7,934	8,536	9,669	10,389	9,241	20.0	-11.1
	수입단가(달러/kg)	4.9	5.13	5.79	6.96	7.10	6.29	28.4	-11.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40	37.3	34.6	32	29.3	26.6	-33.5	-9.2
호주	수입가격(원/kg)	7,338	8,428	8,217	8,300	9,181	8,967	22.2	-2.3
	수입단가(달러/kg)	4.67	5.34	5.36	5.74	6.03	5.85	25.3	-3.0
뉴질랜드	수입가격(원/kg)	5,470	6,172	6,232	7,093	6,844	6,668	21.9	-2.6
	수입단가(달러/kg)	3.48	3.91	4.07	4.81	4.46	4.27	22.7	-4.3
국내 수급	생산량(천 톤)	216	234	260	261	255	219	1.4	-14.1
	1인당 소비량(kg)	10.2	9.7	10.3	10.8	10.9	11.5	12.7	5.5

주 1)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동쇠고기(0202300000) 기준이며, 3개 세번 수입량의 합은 이행 5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88.2%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위의 3개 세번의 FTA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관세율은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냉장·냉동 쇠고기, 냉동갈비)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2.1.2. 돼지고기

- 이행 5년차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미국산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전환 효과로 1.1% 감소한 14만 9천 톤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단가 하락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폭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에는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1,174만 톤) 증가로 수입단가 하락이 예상됨(USDA).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천 톤):

712(발효 전 평년) → 854(이행 2년) → 830(이행 3년) → 849(이행 4년) → 882(이행 5년)

※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kg)⁴⁾:

19.1(발효 전 평년) → 20.9(이행 2년) → 22.2(이행 3년) → 22.8(이행 4년) → 23.3(이행 5년)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9% 상승하였으나, 2014년 냉동 돼지고기(삼겹살)의 관세율 철폐와 그 외 기타 돼지고기류의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4.3% 하락 추정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 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088	3,784	3,257	3,610	3,465	2,955	-4.3	-14.7
	수입단가(달러/kg)	2.21	2.89	2.65	3.16	2.94	2.54	14.9	-13.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5	16	12	8	4	0	-100	-100
EU	수입가격(원/kg)	3,944	4,274	3,979	3,884	3,554	3,376	-14.4	-5
	수입단가(달러/kg)	2.81	3.18	3.11	3.26	2.88	2.73	-2.8	-5.2
국내	생산량(천 톤)	712	750	854	830	849	882	23.9	3.9
수급	1인당 소비량(kg)	19.1	19.2	20.9	22.2	22.8	23.3	22	2.2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돼지고기(02032990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장삼겹살(020319100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이행 5년차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91.2%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 냉동돼지고기(목살, 전·후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4) 이행 5년차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1.3. 닭고기

-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국내 반입금지 조치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의 AI 발생 전 수입량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2월 발생한 AI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었고, 2015년 11월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2개월 만에 인디애나주에서 AI가 발생하여 재차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2016년 7월에 해제됨.
 - 미국산 닭고기 국내 반입금지 조치 해제 이후에도 수입량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33.9% 감소
 - 이러한 과정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선이 브라질로 대부분 전환됨.
- ※ 이행 5년차 기준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비중은 브라질산이 7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태국산(12.0%), 미국산(5.5%), 덴마크산(5.0%) 순임.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 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1,826	2,202	1,983	1,771	1,749	1,310	-28.3	-25.1
	수입단가(달러/kg)	1.36	1.66	1.56	1.48	1.38	1.03	-24.3	-25.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0	18	16	14	12	10	-50.0	-16.7
브라 질	수입가격(원/kg)	3,232	3,449	3,255	3,335	3,143	2,499	-22.7	-20.5
	수입단가(달러/kg)	2.40	2.55	2.48	2.64	2.31	1.79	-25.4	-22.5
국내	생산량(천 톤)	407	464	473	528	585	599	47.2	2.3
수급	1인당 소비량(kg)	9.77	11.60	11.50	12.80	13.40	13.90	42.3	3.7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닭다리(0207141010), 냉동닭가슴(0207141020), 냉동닭날개(020714103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96.1%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 냉동닭다리를 기준으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미국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이와 함께 관세율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수입량이 회복되지 않음.

2.1.4. 유제품

- 이행 5년차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약 4만 톤으로 FTA TRQ 물량(7,879톤)을 초과하였으며,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18~24%)가 적용됨.
 - 체더치즈(0406901000)의 키퍼 외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FT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철폐되고, 그 외 모든 치즈는 15년간 철폐될 예정임.⁵⁾
 - 치즈의 FTA TRQ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량되며, 이행 15년차인 2026년 이후 무한 증량됨.

※ 키퍼 외 물량에 대한 관세율(%)⁶⁾:

10년 철폐: 32.4(이행 1년) → 28.8(이행 2년) → 25.2(이행 3년) → 21.6(이행 4년) → 18(이행 5년)

15년 철폐: 33.6(이행 1년) → 31.2(이행 2년) → 28.8(이행 3년) → 26.4(이행 4년) → 24(이행 5년)

5) 커드(0406102000), 블루바인(040640000)치즈는 FTA TRQ에 해당하지 않으며 두 품목의 관세율은 10년에 걸쳐 철폐됨.

6) 치즈(기준관세율: 36%)의 경우 HSK 세번인 0406류의 101010, 101020, 101090, 200000, 300000, 902000, 903000, 904000, 909000, 900000, 101000에 대해서는 15년(양허유형 H), 901000에 대해서는 10년(양허유형 G)에 걸쳐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철폐됨.

국가별 유제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치즈	미국	수입액	56,244	140,596	188,384	301,316	250,749	168,634
		수입량	12,981	31,877	42,530	63,848	54,821	39,966
		수입단가	4.2	4.4	4.4	4.7	4.6	4.2
	EU	수입액	37,623	71,152	74,399	106,268	148,603	172,901
		수입량	5,621	11,468	10,804	15,747	31,966	44,601
		수입단가	6.5	6.2	6.9	6.7	4.6	3.9
	뉴질랜드	수입액	72,091	100,858	102,242	50,522	63,614	55,466
		수입량	18,054	23,908	23,883	10,139	15,643	16,646
		수입단가	4.0	4.2	4.3	5.0	4.1	3.3
분유 (탈지 +전지)	미국	수입액	901	6,889	24,113	32,743	12,776	12,561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수입단가	3.2	3.5	3.8	4.1	2.2	2.1
	EU	수입액	5,222	33,381	27,573	37,076	23,676	20,438
		수입량	1,542	10,417	6,807	8,312	8,720	8,735
		수입단가	3.8	3.2	4.1	4.5	2.7	2.3
	호주	수입액	18,575	22,562	24,924	24,862	19,537	12,585
		수입량	6,145	6,739	6,566	5,546	7,004	6,095
		수입단가	3.3	3.3	3.8	4.5	2.8	2.1

주: 본 표의 수입량은 품목별 전체 세번(HSK)의 합임. 치즈(14개 세번), 탈지+전지분유(6개 세번)

- 이행 5년차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FTA TRQ 증량과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EU와 뉴질랜드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전년 대비 27.1% 감소
 - 반면, EU산과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39.5%와 6.4% 증가

2.2. 과일

- 이행 5년차 미국산 오렌지, 포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체리, 석류, 레몬과 자몽 수입액은 감소
 - 미국산 오렌지는 작황호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수입액이 큰 폭 증가
 - 미국산 석류 수입액은 국내 소비 감소로 FTA 이행 2년차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미국산 포도 수입액은 미국의 작황부진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큰 폭으로 증가
 - 미국산 체리와 레몬 수입량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 하락폭이 커 수입액은 감소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주요 신선 과일	오렌지	수입액	110	211	186	156	163	210	91.4	28.8
		수입량	92,564	166,931	145,741	91,209	102,884	146,483	58.3	42.4
	체리	수입액	30	81	88	123	120	110	267.4	-8.3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12,387	230.5	2.6
	석류	수입액	10	19	28	24	19	10	0.5	-44.9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4,333	-11.4	-49.8
	포도	수입액	9	16	20	20	18	23	153.1	28.0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7,523	98.0	24.7
	레몬	수입액	8	15	24	25	33	31	305.3	-7.2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3,152	186.9	1.5
	자몽	수입액	7	11	12	14	19	16	145.4	-13.2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1,821	102.1	-16.3
	전체 과일	수입액	216	411	432	421	442	463	114.1	4.8
		수입량	134,542	227,088	222,165	162,324	179,929	218,786	62.6	21.6

주 1) 석류는 기타과일 중 HSK 0810909000 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2) 전체 과일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의 모든 HSK 세번을 포함한 합계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2.2.1. 오렌지

-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FTA 이행 3년차에 캘리포니아지역 냉해와 병충해로 인한 작황부진, 이행 4년차에 서부지역 항만노조 파업에 따른 선적 지연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행 5년차에 FTA TRQ 증량 및 작황호조로 수입이 증가하여 14만 6천 톤 기록
 - FTA 발효 이전인 2004년의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이미 14만 8천 톤을 기록한 바 있음.

※ FTA TRQ 물량(톤): 2,732(이행 4년차) → 2,814(이행 5년차)
 ※ 미국(캘리포니아) 생산량: 1,944천 톤('15)→ 2,168천 톤('16)(UDSDA NASS, '17.1.), 비발렌시아 기준, 1Box=80파운드

- 이행 5년차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1.6달러/kg → 1.4달러/kg)과 관세율 인하(15%→10%)로 전년 대비 12.1% 하락한 것으로 추정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8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1,944	1,860	1,741	2,166	2,059	1,810	-6.9	-12.1
수입단가(달러/kg)	1.2	1.3	1.3	1.7	1.6	1.4	22.8	-10.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50	30	25	20	15	10	-80.0	-33.3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오렌지(0805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오렌지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3~8월까지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 예정).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통계청

2.2.2. 체리

- 미국산 체리에 대한 기준관세율(24%)은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수입량은 대체로 미국 주산지의 작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행 5년차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작황이 역시 부진했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1만 2천 톤)이며, 작황이 양호했던 이행 3년차 대비 5.3% 감소

※ 미국(워싱턴) 생산량: 21만 톤('15)→ 19.5만 톤('16)(UDSDA NASS, '16. 6.)

-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은 FTA 발효 이후 무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이행 5년차 미국산 체리 수입단가가 전년 대비 10.6% 하락했고 환율은 2.6% 상승하여 수입가격이 8.3% 하락함.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8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11,760	9,780	10,724	9,909	11,230	10,300	-12.4	-8.3
수입단가(달러/kg)	8.4	8.7	9.8	9.4	9.9	8.9	5.0	-10.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4	0	0	0	0	0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체리(080929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체리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6)

2.2.3. 포도

-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과 관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24.7% 증가
 ※ 미국산 포도 계절관세율(%): 45(기준관세율)→ 0(이행 5년차)
- 미국산 포도에 대한 관세율은 이행 5년차('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나 계절 관세 적용시기(10월 16일~익년 4월) 수입단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미국산 포도는 주로 6~12월에 수입되며, 특히 10~11월에 집중됨.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10월 16일~익년 4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관세 유형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3,902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580	2,785	-28.6	-39.2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540	3,531	-9.5	-0.2
수입단가(달러/kg)	2.4	일반관세	2.5	2.6	2.9	3.0	1.8	-24.0	-39.5
		계절관세	2.7	2.7	2.9	3.0	3.0	26.9	3.1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45.0	일반관세	42.3	39.7	37.0	34.4	31.7	-29.6	-7.8
		계절관세	24.0	18.0	12.0	6.0	0.0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포도(0806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포도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미국산 포도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페루는 2011년부터 수입실적이 있음.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6)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한·미 FTA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무역 전환효과와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FTA 효과가 상쇄되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임.
- 이행 5년차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감소폭(3.5%)은 더 크게 나타남.
 - 특히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은 수입선 전환효과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 물론 쇠고기, 오렌지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FTA 효과보다도 국내 수급상황과 미국 주산지 작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했으나 과거 미국 광우병 발생 직전('03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 작황호조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증가했으나 FTA 발효 전('04년)과 발효 초기('12~'13년) 수준과 비슷함.
-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고 교역여건이 호전될 경우 FTA 효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한편,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는 상황에서 무역 전환효과와 창출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입구조 변화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큼.
-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
- 이행 5년차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증가폭(14.4%)이 훨씬 크게 나타남.
- 단,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증가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이행 5년차 對미 수출 농축산물 가운데 가공식품의 비중은 75.6%에 달하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8.7% 수준

- 한·미 FTA 이행과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 부문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브렉시트 이후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화를 표방하는 FTA 중심의 기존 통상 전략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국의 농업 관련 통상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기 체결 FTA에 대한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
- 한편,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및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FTA 효과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함.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부사업별 성과평가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01-2017-02

농업농촌경제동향 2017 여름호 | 제20권 제2호 (통권76호)

등 록

인 쇄 2017. 8

발 행 2017. 8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283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